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 주최

제4차 학술회의

한국인의 평화사상

2018. 4 . 25(수)

14:20~17:3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동백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정 및 내용

인사말

임홍배 교수 (HK평화인문학연구단 부단장)

1부. 14:30~15:30 사회: **백지운** (서울대)

최치원의 평화사상

이도흠 (한양대) | 토론: **우실하** (항공대)

정조의 평화사상

안효성 (한국외대) | 토론: **나종석** (연세대)

2부. 15:50~17:30 사회: **서보혁** (서울대)

김구의 평화사상

한시준 (단국대) | 토론: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유영모의 평화사상

박재순 (한신대) | 토론: **이찬수** (서울대)

김수환의 평화사상

박일영 (가톨릭대) | 토론: **변진흥**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목 차

1부.

최치원의 평화사상 —— 9
이도흠(한양대)

정조의 평화사상 —— 23
안효성(한국외대)

2부.

김구의 평화사상 —— 27
한시준(단국대)

유영모의 평화사상 —— 45
박재순(한신대)

김수환의 평화사상 —— 79
박일영(가톨릭대)

부록.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1~3차 학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 99

1

한국인의 평화사상

최치원의 평화사상

이도흠(한양대)

–

정조의 평화사상

안효성(한국외대)

유불선을 아우른 최치원의 평화 사상

이도흠(한양대)

1. 머리글

최치원(崔致遠, 857~?)은 시인 문장가이자 정치인이고 사상가다. 그는 조선시대에 여러 문묘(文廟)에 배향되고 서원에 종향(從享)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갖는 대표적인 유학자였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능통하였다. 6두품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최치원은 12세의 나이로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벼슬을 살고 885년 귀국할 때까지 1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고운(顧雲) · 나은(羅隱) 등 당나라의 여러 문인들과 사귀며 글을 발표하며 문명을 널리 떨쳐 『당서 唐書』 예문지(藝文志)에 「사륙집 四六集」「계원필경」 등 그의 저서명이 수록되었다. 884년에 귀국하여 벼슬을 살았지만,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으로 당나라에서 배운 바를 자신의 뜻대로 펴볼 수가 없었다. 이에 외직을 청하여 대산, 천령, 부성, 함양 등지의 태수를 역임했다. 894년에 진성왕에게 시무책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렸고 진성여왕이 이를 가납(嘉納)하였지만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산과 강, 바다를 소요하며 지냈다. 일설에는 가야산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도 전한다.

주지하듯 최치원은 유불선 모두에 능통하였고, 풍류도와 같은 고유 사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였으며, 중국과 다른 신라의 정체성이나 자주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동인의식(東人意識)도 강하였다. 현존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그의 사상을 평화관의 입장에서 생명평화사상, 전쟁과 폭력 · 갈등 반대의 소극적 평화 사상, 구조적

폭력 해소의 적극적 평화 사상,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의 평화관으로 나누어 조명해 본다.

2. 생명 평화 사상

최치원은 유불선 삼교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류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사산비명(四山碑銘)처럼 그가 찬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랑비의 서문이 실려 있다.

> "최치원은 난랑비 서문에서 '우리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는데, 그 내용은 유불선의 세 가지 가르침을 포함(包含)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을 접화(接化)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서는 효도하고 집밖에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요, 무위(無爲)의 일에 처하며,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요,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라 한다."[1]

위의 기술에서 풍류도가 단지 유불선 3교를 종합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따른 기록의 자의적 해석이다. 유교를 받아들인 때가 대개 신문왕대 이전, 도교를 받아들인 때가 효소왕대 이전의 시기라 하더라도, 신라 건국 초기부터 풍류도는 있었다. 풍류도가 잔존적 세계관으로 많이 잊혀지고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모두 통용되는 신라 하대에서 당대 신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하여 최치원은 '實乃包含三敎'라 한 것이다. 굳이 앞에 "이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라고 기술한 이유도 이와 같다. 특히 이지백(李知白)은 '타국의 이족(異族)인 유불선을 행하지 말고 선왕(先王)이 행하던 연등(燃燈), 팔관(八關), 선랑(仙郎) 등을 부활하여 다시 행하는 것이 국가를 보위하고 태평하게 하는 길이니…'[2]라고 말하고 있다. 연등, 팔관, 선랑 등이 모두 유불선과 다른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불선이 이미 정착한 고려 성종(成宗) 12년(993년)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으니 그 이전의 신라에서 풍류도가 유불선과 별개의 것이었음은 당연하다. 모든 생명있는 것을 다 접화(接化)하였다는 기술이나 풍류도가 화랑집단의 사상을 이루고, 팔관회 등의 기본사상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3] "현묘지도(玄妙之道)의 기원을 기록한 『선사(仙史)』가 중국 도교 계통의 문헌이라 볼 수는 없으며, 최치원이 풍류도를 현묘지도라 하고 이어 '노(老)'를 따로 언급한 것 자체가 중국 도교와의 구분이다."[4]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풍류도적 세계관의 양상과 구조에 관한 점이다. 세계관이란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상의 체계이자 의미를 형성하는 바탕체계다.[5] 『삼국유사』에서 외침이나 재난 등 세계의 부조리에 대해 대응한 양상과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의미를 형성한 것을 종합하면, 신라의 풍류도는 한마디로 말해 신라적 샤머니즘에 산신신앙(山神信仰)이 결합된 것이다.[6]

2대 남해왕(南解王)의 운제부인(雲帝夫人)은 운제산 성모(聖母)였고[7], 4대 석탈해왕(昔脫解王)은 죽어서 동악신(東岳神)이 되며,[8] 7대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에 와서는 태백산에 친히 제사한다.[9] 15대 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또한 태백산에 친히 망제(望祭)를 올린다.[10] 이와 같은 신라 산신신앙은 통일을 전후해서 삼산오악(三山神岳)으로 체계화한다. 삼산오악신앙은 역사학계의 정설과 달리 이미 통일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유사』 권오「감통 제칠(感通第七)」 선도산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 조에는 진평왕 대에 이미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부악(父岳, 公山)을 오악신군(五岳神君)으로 언급하고 있다.[11] 三山은 제력(祭歷), 골화(骨火), 혈례(穴禮)를 가리키며 경주 중심의 산으로서 대사(大祀)의 대상이었다. 오악(五岳)은 위의 다섯 산으로 중사(中祀)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이밖에도 설악, 금강산 등 명산이 소사(小祀)의 대상이었다. 『삼국사기』 〈제사지(祭祀志)〉에

---

1)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 "三十七年 春…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2) 『高麗史』, 卷第九十四, 列傳第七 徐熙 : "曷若復行先王燃燈八關仙郎等事 不爲他方異法 以保國家致太平乎 若以然則當先告神明…"/ 都光淳, 「風流道와 神仙思想」, 신라문화 선양회 편, 『新羅宗敎의 新硏究』 (서울; 書景文化社, 1984), p.291 재인용.

3) 金鼎卨, "風流精神과 新羅文化", 『東方思想論叢』, (寶蓮閣, 1975), pp.371–382; 都光淳, 위의 책, pp.287–322; 李基東, "新羅 花郎道의 社會學的 考察",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道』 (서울: 일조각, 1984), pp. 350–351 참고함.

4) 柳孝錫, "風月系 鄕歌의 장르性格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58.

5)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양대출판부, 1999), pp.182–192.

6) 이도흠, "新羅人의 世界觀과 意味作用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1집, (1996년 12월), pp.159–162.

7) 『三國遺事』,「紀異」, 南解居西干 조.

8) 위의 책, 脫解王 조.

9) 『三國史記』,「新羅本紀」 逸聖尼師今 조.

10) 위의 책, 基臨尼師今 조.

11) 위의 책, 眞平王 條..

서 보듯 이들 산에는 산신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다. 이들 삼산오악은 사악(四岳)이 국경의 사지(四至)에 해당하고 골화처럼 정복한 땅에 세운 예, 삼산이 호국신이라는 『삼국유사』 김유신 조의 기록으로 볼 때, 정치사회적으로는 새로이 편입되는 세력을 상징하며 신라가 여러 집단을 흡수 정복해가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또 신앙적으로는 산신이 각 지방의 영웅과 결합하여 각 지방에 할거한 토호족의 조상신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산을 정점으로 하는, 또는 그 산을 신앙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종교적 세력의 신라로의 수용을 의미한다.[12] 특히 풍류도를 집단의 이념으로 삼았던 화랑은 이들 산을 대표적 유오지(遊娛地)로 삼았다. 이는 풍류도가 천상과 지상의 중개자요 천상을 향한 수직지향의 은유를 갖는 산을 통해 천상의 것을 지향하되, 그 지향의 구심점은 호국 등 현실의 복락 추구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신앙형태는 산과 같이 천상과 지상의 중개자요 수직지향적인 신목신앙(神木信仰)[13], 천마(天馬)신앙,[14] 용(龍)신앙[15]의 양상에서도 재삼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풍류도는 '지금 여기에서' 삶의 평형과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산, 나무, 새, 샤만 등의 중개를 통해 지상에서 천상,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 비속한 것에서 성스러운 것, 현실적인 것에서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실지향적인 신라적 사상 체계이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 샤먼의 매개를 통해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와[除災招福] 세계와 조화와 삶의 전일(全一)을 추구하려는 샤머니즘의 세계관과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상동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풍류도가 너른 범위의 샤머니즘이되, 자연신 및 산신신앙과 결합하였으며 윤리의식, 사회의식, 국가의식으로서 유불선적 요소를 이미 내포하여 원시신앙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화한 신라적 특수성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풍류도는 자연신 신앙으로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이와 하나가 되려는 물아일체를 추구하였다. 풍류를 따르는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풍류도(風流徒)로도 불렸던 화랑은 인위를 배격하고 무위(無爲)의 자연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노닐며 소요(逍遙)의 삶을

12) 이상 李基白,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硏究』 (서울: 일조각, 1974), pp.194–215: 홍순창, "신라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선양회 편, 『新羅民俗의 新硏究』, (서울: 서경문화사, 1983), pp.37–63: 문경현, "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문화선양회 편, 『新羅思想의 再照明』 (서울: 서경문화사, 1991), pp.15–36. 참고함.

13) 鷄林은 始林으로 신라 대대로 聖地로서 숭앙받는다. 신라금관의 樹枝形 立華飾, 오늘날까지 영남 일원과 중부지방에 남아있는 솟대와 성황당의 잔존으로 미루어 신목신앙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14) 혁거세신화에 백마가 하늘에서 날아와 혁거세란 성인을 인간계에 전달하고 있다. 天馬塚의 天馬圖, 신라고분에서 부장물로 출토되는 馬形土器는 천마신앙의 잔영을 말해준다.

에 걸쳐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龍形刻畵土器나 龍形土偶裝飾土器의 출토로 고고학적으로도 신빙성을 갖는다. 이상 각주 11번과 12번은 李殷昌, "新羅神話의 考古學的 硏究", 신라문화선양회 편, 『三國遺事의 現場的 硏究』 (서울: 서경문화사, 1990), pp.90–91 을 참고함.

행하였고, 또 『삼일신고』 등을 보면 고대 한국인은 언어 저 너머에 궁극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고 굳이 언어로 뜻을 나타내는 것을 지양하였으니 이런 삶과 언어에 대한 이해는 도교와 통한다. 풍류도에서는 새도, 거북이도, 말도, 나무도, 심지어 생명이 없는 달과 별과 산도 모두 신이다. 이렇듯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선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니 이는 그대로 불교적 삶이다.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닦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와 의리를 지키며 상하가 예를 따라 자연 속에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단련한 몸으로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고자 한 것은 유교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 이렇듯 풍류도는 개인적으로는 놀이와 노동이 일치하는 아주 자유스러운 삶을 지향하며, 타자에 대해서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신앙이자 삶의 원리다.

이런 바탕에서 볼 때, '接化群生'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과 마주쳐서 어울리며 (서로) 변화하다"의 뜻이다. '化'라는 낱말을 쓴 것은 다른 생명과 인간이 서로 존재(being)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becoming)로서 만남을 뜻한다. 무서리가 내려 다른 식물은 다 죽었는데 오히려 서리를 머금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국화꽃을 보고 '지절(志節)'이나 '선비'의 은유를 형성하고 그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으로 바뀌고 국화꽃 또한 자연의 한 대상에서 지절과 선비의 의미를 갖는 생성자로 바뀌며, 이런 소통과 피드백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는 도교와 관련된 다른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은 자연과 생명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갖고 서로 조건과 인과를 형성하며 서로를 만들어주는 상호생성자(inter-becoming)로서 파악하고 온 생명들과 평화를 모색하였다.

> "삼가 원하옵건대, 참된 바람이 세상을 깨끗이 씻고 아득히 큰 호수의 물이 세차게 흘러 우리 임금께서 암음(巖音)에서 만세를 누리시고 … 그런 뒤에 머리털을 인 것과 이빨을 머금은 것에서 비늘을 달고 헤엄치는 것과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날마다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하늘이 이룬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여지이다."[16]

머리털을 가진 사람, 이빨을 가진 포유류의 동물, 비늘을 달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16) 崔致遠, 『桂苑筆耕』, 卷15, 「中元齋詞」: "伏願眞風蕩滌 玄澤滂流 吾君享萬歲於巖音 … 然後戴髮含齒 鱗潛羽翔 不知日用之功 各遂天成之樂" 이하 『계원필경』으로 인용한 한문의 번역은 『역주 최치원전집』1–2, 최영성(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을 참고하되, 필자가 약간의 오역을 수정하고, 한시의 번역은 우리 시가의 3.4조나 4.4조의 율격에 맞추어 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평소 지론과 전후 맥락에 맞게 다시 번역하였다.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조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동등하게 주체로 나열하고 있다. 날마다 하는 일을 모른다는 표현은 이 글이 도교의 재사(齋詞)로 쓰인 때문이다. 도교에서 바라보면, 온 생명들은 유교에서 바라보듯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제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지 자신도 모른 채 제 각각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물을 생성하며, 그것들로 이루어진 우주 삼라만상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다. 자연(自然)은 이름 그대로 인위(人爲)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 작동하고 그리 존재하고 아무런 함이 없이 하지 않음이 없는 무위(無爲)이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자 하늘이 부여한 즐거움이다. 최치원은 도교의 재사를 통하여 인간과 포유류, 조류, 어류들이 모두 다 같이 하늘이 부여한 무위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는 다음 재사에도 나타난다.

> 공중을 날거나 물속에서 뛰어오르는 것, 땅을 기어다니는 것과 부리로 숨을 쉬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수지역'에 올라서 혼미한 길을 밟지 않기를 바라나이다.[17]

'인수지역(人壽之域)'이란 천수를 다하며 즐겁게 사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여기서도 새, 물고기, 벌레, 포유류 등 모든 동물이 태평성대의 평안한 백성처럼 자기 목숨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고, 그렇지 못한 채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거나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 "그 다음으로 원하건대, … 태위께서 묘당에 높이 앉아…무릇 머리털을 인 것과 이빨을 머금은 것에서 비늘을 달고 헤엄치는 것과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 모두 자비를 입어 능히 완전히 해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18]

이 글에서 최치원은 불교의 교리를 통해 생명평화를 피력하고 있다. 머리털을 가진 사람과 이빨을 머금은 포유류, 비늘을 달고 헤엄치는 어류, 하늘을 날아가는 조류가 모두 동등하게 부처님의 자비를 입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다. 내공이 깊은 스님들조차 불성과 해탈의 대상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 대개의 스님들이 짐승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짐승이 열반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최치원은 어떤 동물이든 모두 부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온 생명들의 해탈을 소망하고 있다.

17) 같은 책, 「下元齋詞」: "至於翔翼躍梨事 跂行喙息 偕登仁壽之域 不躡昏迷之途"

18) 같은 책, 「求化修大雲寺疏」: "…次願太尉… 高坐廟堂…凡於戴髮含齒 鱗潛羽翔 皆荷慈悲 盡能解脫"

최치원은 글과 사상만이 아니라 생명평화를 몸소 실천하였다. 진성왕(재위 887~896) 때 최치원은 함양의 태수로 부임했다. 함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위천은 자주 홍수가 났다. 홍수의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둑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길을 트는 것이다. 둑은 물을 썩게 하고 생명들을 죽이지만, 숲은 빗물을 품었다가 정화한 다음 서서히 내보낸다. 물은 흐르면서 이온작용, 미생물의 물질대사, 식물의 흡수에 의하여 자연정화를 한다. 둑을 쌓아 홍수를 막으면, 물이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하는 것이 중단되어 강을 오염시키고 그 강에 서식하는 생명을 죽인다. 최치원은 홍수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대신 상림이라는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여러 개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였다. 그는 홍수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숲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게 했다. 일제강점기에 벌채를 하여 하림(下林)은 사라져버리고 상림(上林)만 남았으나, 지금도 폭 200~300미터, 길이 2킬로미터, 6만여 평에 걸쳐 2백 년 된 갈참나무를 비롯하여 120종, 2만여 그루의 활엽수가 원시림과 같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19] 그렇게 하여 1천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홍수를 막으면서도 물이 더욱 맑게 흐르게 했다.[20]

이처럼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한데 아우른 생명 평화관을 가졌다. 풍류도에서 보면 모든 생명과 자연은 신이 깃든 곳으로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곳이다. 도교에서 보면, 모든 동물과 인간이 무위자연을 이루는 것으로 다 같이 평등한 것이다. 불교에서 보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과 인간이 다 같이 존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기를 바랐으며, 실제로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는 대안을 택하였다.

3. 전쟁과 폭력 갈등 반대의 소극적 평화 사상

최치원은 고변(高駢)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지은 글이 표 · 장 · 격(檄 · 서(書) · 위곡

19) 『경남도민일보』, 2014년 8월 8일. 『한국일보』, 2015년 8월 18일.

20) 『신증동국여지승람』 31권에 상림 안에 있는 '학사루(學士樓)'에 대해 "최치원이 태수로 있으면서 등림(登臨)하던 곳인 까닭으로 학사루라 이름하였다."(민족문화추진회본, 247쪽). 1923년 최씨문중(崔氏門中)에서 세운 「문창후최선생신도비(文昌侯崔先生神道碑)」에는 "…일찍이 함양에 부임하여 벌을 주지 않고도 (백성들을) 교화하여 행실이 다르게 하였으며 고을에 학사루를 세우고 긴 제방에 손수 나무를 심었다.(…莅咸陽不罰化行移郡建學士樓 手植木於長堤)"라는 기록이 있다.

(委曲) · 거첩(擧牒) · 제문(祭文) · 소계장(疏啓狀) · 잡서(雜書) · 시 등 1만여 수에 달하였으며, 귀국 후 정선하여 『계원필경 桂苑筆耕』 20권으로 엮어내었다. 당 황제는 그의 문재와 공로를 기려 정5품 이상에게 주는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했다."[21] 그가 종사관으로 참전하여 맡은 바 임무대로 글을 썼음에도 전쟁을 좋아한 흔적은 없다. 전쟁터에서 가장 격렬하게 쓴 「토황소격」조차 "이제 내가 왕사(王師)를 거느리고 정벌(征伐)을 하려 하나 싸움은 없는 것이요, 군정(軍政)은 은혜를 앞세우고 베어 죽이는 것을 뒤에 하는 것이다."[22] 라고 말한다. 아마 원래 문인 기질이 농후하였던 그가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더욱 더 평화주의자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운은 효공왕 12년(908)에 중알찬(重閼粲)으로 호국의영도장(護國義營都將)을 지내던 이재(異在)가 국가의 경사를 기원하고 병란을 없애기 위하여 남령(南嶺)에 팔각등루(八角燈樓)를 세웠기에 그 기문을 썼다.

"결단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아마도 불사(佛事)를 융성하게 하는 일이리라. 바라는 바는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않게 하고 길 잃은 중생들을 널리 깨우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법등(法燈)을 높이 매달아 병화(兵火)를 속히 해소해야 하겠다."[23]

고운이 이재를 빌려서 말한다. 바라는 바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이 생기지 않도록 중생들을 널리 깨우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의 등을 높이 매달라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곳곳에 퍼지고 사람마다 간직하여 전쟁을 없애는 것이다. 당시에는 호국삼부경이었던 『인왕경』, 『법화경』, 『금광명경』의 가르침에 따라 1백 명의 스님을 청해 1백 분의 부처님을 모셔놓고 공양을 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을 기원하였다. 적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그들이 아예 외침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영역이었다. 최치원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땅 신라가 아예 전쟁 자체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다.

"지금 불법이 장차 쇠멸하려 하면서 마군(魔軍)이 다투어 일어나고 있으니,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아득히 먼 것을 살펴보면서, 연기가 짙게 일어나 불타 없어질 것을 염려해야 할 때이다. 도가의 교훈에 이르기를 '안정된 때에 미리 조심해야 보전하기가 쉽다'라고 하였고, 유가의 글에 이르기를 '미리 환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지 않고서 이를 바라는 것을 폭력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재(齋)라고 하고, 환난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계(戒)라고 한다. 유자(儒者)도 이와 같이 하는데, 불자(佛者)가 그냥 있을 수 있으리오."[24]

여기서 마군(魔軍)은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삼독(三毒)이고, 형이하학적으로 보면 삼독을 씻어내지 않은 채 물든 자들, 더 나아가 도적들일 것이다. 고운은 도적과 반란군이 들끓어 신라가 쇠멸하는 상황에서 왕족과 귀족은 물론 온 백성들이 탐욕을 씻고 미리 환란을 경계하고 예방을 하여 나라를 살릴 것을 불교 경전과 『논어』, 『도덕경』을 인용하며 간곡하게 청하였다. 최치원은 미리 경계하여 환난을 방지하는 것을 계(戒)라 정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폭력이라 비판하였다.[25] 먼저 마음 속에서 분노와 갈등 등의 마음을 씻어내는 재(齋)에 진력하고 환란이 오지 않게끔 경계하여 폭력과 다툼을 아예 없애는 계(戒)에 힘써야 한다고 폭력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 묘파한 것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다음 시에서 잘 나타난다.

「가야산 독서당에서」

바위로 내달리며 산을보고 부르짖어
곁사람 소리조차 알아듣기 어려워라
저세상 시비소리 귀닿을까 두려워서
일부러 물돌려서 모든산을 감쌌다네.[26]

말년에 서라벌을 떠나 가야산 해인사에 머물며 쓴 시다.[27] 해인사 결계(結界) 도량의 기문에 쓴 대로, 가야산은 "석가모니께서 정각(正覺)을 이룬 불타가야(佛陀伽倻)와 이름이 같

21) 이도흠, "최치원", 『한국철학사전』 (동방의 빛, 2011), p.62.

22) 최치원, 같은 책,「檄黃巢書」: "今我以王師則有征無戰 軍政則先惠後誅"

23) 최치원, 같은 책,「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決報君恩 蓋隆佛事 所願不生冥處 遍悟迷羣 惟宜顯擧法燈 亟銷兵火"

24) 최치원, 같은 책,「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況今象法將衰 魔軍競起 觀日暮而途邈 慮烟深而火熸 道訓曰 其安易持 儒書云 不戒謂暴 … 且洗心曰齋 防患曰戒 儒猶若此 釋豈徒然"

25) 防患曰戒'에서 '患'은 근심, 환난 등 여러 뜻을 갖는다. 개인적인 것인가 집단적인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글이 각처에서 도적과 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쓴 것이므로 환난으로 번역하였다.

26) 최치원, 앞의 책,「題伽倻山讀書堂」: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籠山"

27) 일설에 고운이 가야산에 들어와 학사대에서 책을 읽고 농산정(籠山亭)에서 시를 썼다고 하니, 농산정에서 지었을 가능성도 크다.

아 특별한 곳이다."[28] 친형인 현준(賢俊)이 승려로 머물고 있었고 서라벌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산천이 수려하여 중앙의 정치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도 좋았을 것이다.

비가 오자 홍류동 계곡의 물이 첩첩 바위 사이로 미친 듯 쏟아졌다. 이는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간 이후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선주(宣州)의 표수현위(漂水縣尉), 도통순관 승무랑 전중시어사 내공봉(都統巡官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 고변의 종사관 등 벼슬살이를 하는 등 미친 듯 달려온 그의 젊은 시절과 은유관계를 형성한다. 계류는 아래로 흐르는 것만이 아니었다. 바위에 부딪치고 절벽을 때리면서 겹겹 쌓인 가야산을 보고 울부짖었다. 그리 그도 장안까지 점령하여 황제를 칭하던 황소가 침상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격한 글로 타인을 때리기도 하고, 고운(顧雲), 나은(羅隱) 등 당대 최고 시인들이 무릎을 칠 시를 짓기도 하고, 신라를 쇄신할 열 개의 개혁책을 올려 진성여왕과 신라 조정이 흔들리게도 하였다. 하지만, 해인사에 머물고 보니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저 물소리로 인하여 곁에 있는 사람 말소리도 듣기 어렵듯,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였다. 도망치듯 가야산으로 오니 마음이 평안하였지만, 간혹 서라벌로부터 험담이 들릴 때마다 최치원은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홍류동 골짝으로 내려와 물소리를 들었으리라. 물소리가 다른 소리를 모두 삼켜 적멸에 이르듯, 물소리에 침잠하면 분노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마음을 저 세상 시비소리가 그의 귀에 닿을까 보아 두려워서 일부러 물을 돌려서 온 산을 감쌌다고 표현한 것이다. 최치원은 여러 곳의 글에서 명리(名利)를 버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29]

이처럼 최치원은 전쟁은 물론, 시비와 갈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분노와 갈등 자체를 마음에서 씻어내는 재(齋)와 환란을 미리 방지하는 계(戒)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4. 구조적 폭력 해소의 적극적 평화 사상

갈퉁이 말한 대로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다. 요한 갈퉁은 직접적

28) 최치원, 앞의 책, 「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山稱伽倻 同釋迦文成道之所"

29) 이도흠, "최치원, 유학파 지식인, 불교에 빠지다", 『불교평론』, 64호, (2015년 12월 1일)

이고 물리적인 폭력과 함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 개념을 설정한다. '구조적 폭력'이란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와 지금과 다른 상태로 될 수 있는 것,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30]이다. 위암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 실패로 죽는 것은 자연사이이지만, 제때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는다면 이것은 구조적 폭력이다.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려 하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에게 '피할 수 있는 모독'을 가하는 것이다.

최치원은 앞에서 인용한 「팔각등루기」에서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땅에서는 여전이 간악한 무리들을 용인하는구나! 시국이 위태로우면 생명 모두가 위태로우며,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의 물정(物情)도 어지러운 법이다."[31]라고 말한다. 최치원은 당시에 도적이 들끓고 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롭고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진 원인을 개인에게만 두지 않고 세상과 시국에 두었다. 세상이 올바르고 시국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폭력이 근절되고 태평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지만, 진성왕에게 나라의 개혁책을 제시한 것이다.

5.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의 평화관

최치원은 종교와 사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아울러 융합하였다. 주지하듯 고운은 유불선과 풍류도 모두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그는 "반야(般若)로 간과(干戈)를 삼고, 보리(菩提)로 갑주(甲冑)를 삼아"[32] 진리에 이르고자 하며 교(敎)와 선(禪)을 융합하였고, "유(有)만 집착하거나 무(無)만 고수하면 단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기 십상이다. 진원(眞源)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경계가 끊어진 반야[般若之絕境)]의 경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33]라며 중관과 유식을 종합하고자 하였으며, 선에서도 돈오와 점수 또한 어느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

30)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1969, p. 168.

31) "天未悔禍 地猶容 時危而生命皆危 世亂而物情亦亂"

32) 최치원, 앞의 책,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33) 같은 책, 「無染和尙碑銘」.

는 두 가지 길로 보았다.[34] 이는 최치원이 큰 그릇으로 도를 바라보면서 인본주의, 곧은 마음[直心], 차이의 사유를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위대하도다!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 마루로 삼는 것은 도(道)다. 사람이 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도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혹 존귀해진다면 사람도 저절로 존귀해지게 마련이다. 도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덕있는 이를 존숭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가 존귀해지고 덕 있는 사람이 귀중하게 된다."[35]

고운은 하늘 아래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도라고 본다. 도란 것이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인 것이자 궁극적 진리다. 그 어떤 도(道)든 사람을 떠나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도를 따를수록 사람이 존엄해지며, 거꾸로 사람의 덕이 높아야 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와 덕은 둘이 아니다. 도라는 크고도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안에 노장의 도든, 공맹의 도든, 붓다의 도든 다 포함된다. 또, 사람을 존귀하게 하게 덕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유불선이 서로 헤살을 놓지 않은 채 하나로 통한다.

이를 위한 인간의 자세는 곧은 마음[直心]이다. 그는 "『법장화상전』에서 법장의 행적을 그의 저술인 『화엄삼매관』에서 설한 발심(發心) 가운데서 '직심(直心)'의 열 가지 의미에 맞추어 전기를 구성할"[36] 정도로 직심을 중요하게 여겼다.

> "유서(儒書)에 이르기를,'(곧은 것을) 굽은 것 위에 두어야 한다', '생각에 삿됨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불경에 이르기를 '정토가 도량이다'고 하였으니, 바로 직심을 가리킨 것이다."[37]

34) 이도흠, 앞의 글을 요약함.

35) 최치원, 같은 책, 「善安住院壁記」: "偉矣哉 天所貴者人 人所宗者道 人能弘道 道不遠人 故道或尊焉 人自貴矣 能助道者 惟崇德歟 然則道之尊 德之貴"

36)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철학사상』 (서울: 문사철, 2012), p.230.

37) 최치원, "唐大薦福寺故寺主飜經大德法藏和尙傳", 『역주 최치원전집』, 앞의 책, p.318.: "書云 措諸枉 思無邪 經曰 爲淨土是道場"

곧은 것은 늘 굽은 것 위에 있는 것으로, 곧은 마음을 가지면 생각할 때마다 삿됨이 없이, 좋은 시를 쓰고 읽을 때처럼 늘 성정의 올바름[性情之正]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곧은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으로, 유리창의 먼지를 닦으면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무명(無明)을 없애고 삼독(三毒)을 멸하여 곧은 마음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부처이니 곧 바로 정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곧은 마음을 가지면 유교를 통해서든, 불교를 통해서든, 도교를 통해서든 누구나 진리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최치원은 차이의 사유를 가졌다. 그는 진감선사비에서 "무릇 도는 사람과 멀지 않다. 사람은 나라마다 차이가 없다"[38]라고 첫 문장에서 선언한다. 도는 사람들로부터 멀지 않으니 누구나 도를 구하는 자는 이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의 능력, 지위, 인종의 차이는 없다. 누구든 곧은 마음과 신심(信心)만 있으면 이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이란 나라마다 다름이 없다. 다름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원효는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 것이요, 다르다는 것은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다 하지만 그것은 같음을 나누어 다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을 녹여 없애고 같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39]라며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폈다. 이성과 교양이 증대된 20세기에 백인/기독교/우파가 유색인/이교도/좌파에 대해 대량학살을 감행하고 백인 아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유색인 아이는 별 죄책감 없이 살해한 것에서 잘 나타나듯, 동일성은 타자를 상정하고 이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며 이의 대안은 차이의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차이의 사유에서는 동일성을 해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한다.[40] 물론, 사례가 하나이기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첫 문장에서 선언적으로 단정하였기에 최치원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유를 가졌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최치원은 유불선과 풍류도 모두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큰 그릇으로 도(道)를 바라보고 이 안에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본 점, 어떤 진리와 종교든 사람이 근본이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의 관점을 지닌 점, 내적으로는 곧은 마음을 가지면 삿된 생각을 벗어나 누구든 깨달음과 부처에 이른다고 통찰한 점, 무엇보다도 동일성을 해체하고 차이의 사유를 지향한 데서 비롯된다.

38) 『有唐新羅國故知異山雙谿寺教謚眞鑒禪師碑銘』, 『역주 최치원전집』1권, 151쪽.

39) 元曉, 『金剛三昧經論』,『韓國佛教全書』, 제1책 (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626-상.: "同者辨同於異 異者明異於同 明異於同者 非分同爲異也 辨同於異者 非銷異爲同也"

4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이도흠, "폭력 유형별 화쟁의 평화론",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의 3장 '직접적 폭력과 변동어이의 눈부처-차이론'(12-20쪽)을 참고하기 바람.

6. 맺음말

신라 말기의 사상가, 시인, 문장가, 정치인이었던 최치원은 풍류도, 유불선 모두에 능통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풍류도, 도교, 불교를 한데 아우른 생명 평화관을 가졌다. 그의 사상을 평화관의 입장에서 생명평화사상, 전쟁과 폭력 갈등 반대의 소극적 평화사상, 구조적 폭력 해소의 적극적 평화사상,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와 평화관으로 나누어 조명해 보았다.

최치원은 생명에 대해 풍류도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과 자연은 신이 깃든 곳으로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보았다. 도교에서는 모든 동물과 인간이 무위자연을 이루는 것으로 다같이 평등한 것이다. 불교에서 보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과 인간이 다같이 존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기를 바란 생명평화사상을 지향하였으며, 실제로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는 대안을 택하였다.

최치원은 전쟁은 물론, 시비와 갈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분노와 갈등 자체를 마음에서 씻어내는 재(齋)와 환란을 미리 방지하도록 계(戒)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최치원은 당시에 도적이 들끓고 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롭고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진 원인을 개인에게만 두지 않고 세상과 시국에 두었고 이에 근본적으로 구조적 폭력의 요인인 제도를 개혁하기를 바란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였다.

이처럼 최치원은 유불선과 풍류도 모두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큰 그릇으로 도(道)를 바라보고 이 안에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본 점, 어떤 진리와 종교든 사람이 근본이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의 관점을 지닌 점, 내적으로는 곧은 마음을 가지면 삿된 생각을 벗어나 누구든 깨달음과 부처에 이른다고 통찰한 점, 동일성을 해체하고 차이의 사유를 지향한 데서 비롯된다.

정조의 평화사상

안효성(한국외대)

— 별지 인쇄 —

2

한국인의 평화사상

김구의 평화사상

한시준(단국대)

–

유영모의 평화사상

박재순(한신대)

–

김수환의 평화사상

박일영(가톨릭대)

백범 김구와 세계 평화상

한시준(단국대)

1. 머리글

19세기 이래 제국주의가 번창하면서 지구상의 수많은 약소민족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받았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로 인해 약소민족들은 자유와 평화를 짓밟히게 되었고, 수탈과 착취에 시달렸다. 약소민족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제국주의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을 흔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독립운동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짓밟는 제국주의를 상대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 독립운동이기도 했다.

한국의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족이 전개한 독립운동을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만, 즉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도 세계사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것과 더불어, 일본제국주의에게 짓밟힌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목표였다. 독립운동 단체나 지도자들은 독립을 쟁취한 후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 이를

강령 · 정강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구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힌 지도자로 백범 김구를 꼽을 수 있다.

백범 김구(1876~1949)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시기를 살아가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친 인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대표적 지도자였다.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백범은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1941년 11월 광복후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한 일이 있고,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통해 이를 밝히기도 하였다.

백범 김구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상당수는 백범의 독립운동이나 통일운동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가 건설하고자 한 독립국가의 모습을 밝히려는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1]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단지 일제를 상대로 투쟁한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주독립국가'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세계평화'를 제창하였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 글은 「나의 소원」을 중심으로 백범 김구가 건설하고자 하였던 독립국가의 모습,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세계평화였음을 밝혀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백범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인가 하는 것과 한국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국가이자 민주공화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간 지도자로서의 경륜을 가진 인물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와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하겠다는 그의 구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상민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1) 상민의 삶, 민족과 국가

백범 김구(이하 백범으로 약칭)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일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소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던 해에 태어났다. 이후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5년에 걸친 식민지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백범은 삶의 전부를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맞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활동하였다.

개인으로서도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다. 백범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상민으로 태어났다. 안동 김씨로 양반가문이었지만, 오랜 선조 金自點이 반역자가 되면서, 그의 조상들은 황해도 산골로 피신하여 신분을 감추고 상민으로 살았다. 상민 출신인 그는 그의 집안이나 부모들이 양반들로부터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양반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삶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기도 했다. 아버지 金淳永과 어머니 郭樂園은 가난한 농부였다. 백범은 외아들이었지만, 열 살이 다 될 때까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집안의 형편은 빈곤했다. 당시 일반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집안은 지독히도 어려웠고,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

상민으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백범은 이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 방법은 공부하여 과거시험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졸라 서당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과거시험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시험장에서 본 것은 온갖 부조리와 사회의 부패상 뿐이었다.

백범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힘을 얻은 것은 동학이었다. 동학이 '신분의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듣고, 동학에 입문하였다. 동학은 그가 세상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준 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교조 崔時亨을 만나고, 19살 나이에 동학의 중간 간부인 접주가 되었다. 그리고 1894년 동학교도들이 농민들과 함께 동학농민항쟁을 일으켰을 때, 황해도 해주에서 동학군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2]

백범은 동학에 이어 유교, 불교, 기독교도 접하였다. 동학군을 일으켰다가 패한 후, 그는 동학군을 토벌하던 安泰勳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여기서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유학자인 高能善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고능선의 가르침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고, 스승으로 모셨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할 '치하포사건'으로 인천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한 후, 마곡사에서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기도 했고, 황해도 지역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백범은 성장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끝없는 도전의 삶을 살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상민으로 태어나고 가난한 가정환경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았다. 동학에 참여한 것도 그것이고, 이후 유교 · 불교 · 기독교 등을 받아들인 것도 그것이었다.

민족,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백범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1)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후 민족국가 건설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 김삼웅,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2003) ; 한시준, "백범 김구의 신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5 (2005) ; 신용하, "백범 김구의 새 민주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2008) ; 한시준,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과 세계평화의 꿈", 『동양학』, 62 (2016) 등의 연구가 있다.

2) 조동걸, "백범의 청소년기 생활과 의병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1 (백범학술원, 2003) p.18.

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 자신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민족적 수치를 당하거나 국가가 위태로울 때,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안태훈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만주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었다. 서간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金利彦이 국모가 왜구에게 피살된 치욕을 가만히 앉아 볼 수 없다며 의병을 일으키자, 그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강계성을 공격하는 전투를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모를 시해하였다고 의심되는 인물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백범은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조선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수상한 일본인을 만났다. 백범은 이 자가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가 아닐까? 만일 아니더라도 공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나라의 치욕을 앙갚음 하리라'며, 맨손으로 그를 처단한 것이다.[3)]

당시 왜놈은 옷 속에 칼을 차고 있었다. 칼을 가진 자에게 맨손으로 대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백범이라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국모가 시해되었는데, 국민이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왜놈을 처단하게 한 것이다. 당시 백범의 나이 21살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인천감옥에 투옥되어 악독한 고문을 받았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백범은 '치하포 사건'을 계기로 일제에 맞서 투쟁하는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인천감옥을 탈옥하였다. 이후 마곡사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황해도 지역의 기독교 인사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운동을 전개하자, 기독교에 입문하고 이들과 함께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활동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사들과 함께 을사늑약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안창호 · 이동녕 등의 인사들과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백범은 구국운동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구국운동으로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1910년 8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대한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신민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사들 6백여명이 일제가 조작한 데라우찌총독암살미수사건으로 피체되었고, 이중 105명이 실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4)]

백범도 피체되었다. 당시 피체된 인사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다. 백범도 매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온갖 악독한 고문을 일곱 차례나 받았다. 그렇지만 "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거니와 내 정신은 빼앗지 못하리라"며 버텨냈고, 살아남았다.

3)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총서2) (나남출판, 2002), pp. 85~88.

4)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한성대 출판부, 2012), p. 32.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백범이 느낀 것이 있었다. 혼절하였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을 고문하던 순사를 보고 "저 왜구처럼 일에 밤새워 본 적이 몇 번이었던가? 이렇게 자문해보니 온 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 통절한 중에 내가 과연 망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찼다"고 하였다.[5)] 일본 순사는 밤을 새워가며 자기 나라를 위해 고문을 하는 데, 자신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었는가를 반문한 것이다.

백범은 자신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감옥생활을 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독립국가를 세우고,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다짐이었다. 그 결심으로 이름을 龜에서 九로 바꾸었다. 왜의 호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또 호도 白凡으로 고쳤다. "白丁凡夫라도 애국심이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6)] 그리고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의 뜰도 쓸고 창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2)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는,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인물이었다. 상민으로 태어나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고, 체계적인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그는 몸으로 민족과 국가를 체득하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을 통해 그는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약칭)는 3 · 1독립선언을 계기로 수립되었다. 1919년 3월 1일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고 한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운동을 일으켰다. 3 · 1독립선언의 핵심은 '독립국'임을 선언한 데 있었다. '독립국'임을 선언한 후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독립을 선언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인사들이 상해로 모였다. 이들은 먼저 국회와 같은 臨時議政院을 구성하였다. 곧바로 제1차 의정원 회의를 열었다.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독립국'의 국호였다. 국

5) 김구, 『백범일지』, p. 214.

6) 김구, 『백범일지』, p. 266.

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이어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관제를 제정하고 국무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정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통과시켰다.[7]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국민족의 역사에서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웠다는 점이다. 한국민족은 고조선 · 부여 · 고구려 · 백제 · 신라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등 수 많은 국가를 세우며 반만년 역사를 유지하여 왔다. 대한제국에 이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둘째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8]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한국민족의 역사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었다.

백범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 상해에 도착하였다. 당시 임시정부는 수립만 되어 있었다. 미국에 있던 島山 安昌浩가 5월말 상해에 도착하여 내무총장에 부임하고, 국무총리 대리를 겸임하면서 임시정부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백범은 내무총장을 찾아갔다. 안창호에게 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안창호는 백범을 경무국장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백범은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새롭게 출발하였다. 3 · 1운동 직후 상해 이외에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위치는 상해에 둔다는 데 합의하고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李承晩 대통령과 李東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다.[9]

그러나 임시정부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부임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이동휘는 국무총리에 선출된 후 상해로 왔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동휘에게 상해의 일은 국무총리가, 미주의 일은 자신이 담당하자는 역할분담을 제의하고, 자신은 미국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이 상해에 부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우선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없이 국경을 멋대로 떠날 수 없다"는 헌법을 어긴 것이었다.[10] 또 상해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란 점 등도 있었다. 이로 인해 상해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각원들과 미국에 있는 대통령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파란을 겪게 되었다. 1920년 12월 대통령 이승만이 우여곡절 끝에 상해로 와 부임하였지만, 파란은 수습되지 못하였고, 5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11]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정부의 각원들도 사퇴하고 상해를 떠났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조직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이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방법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朴殷植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박은식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國務領制로 바꾸었다. 그리고 만주지역의 대표적 지도자인 李相龍 · 梁起鐸, 이어 安昌浩 · 洪震 등을 국무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렇지만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취임하지 않았다.

임시정부가 난국을 겪고 있을 때, 그 수습 책임을 맡은 것이 백범이었다. 백범은 李東寧 등의 권유로 1926년 12월 국무령에 취임하였다.[12] 국무령은 행정수반으로 '대통령'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백범은 경무국장으로 시작하여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행정수반이 되었다.

백범은 국무령이 되어 무정부상태를 수습하였다. 내무 · 외무 · 군무 · 재무 · 법무 등 행정부서 책임자를 임명하여 정부의 조직을 갖춘 것이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백범은 보다 안정적인 정부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으로 1927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령을 중심한 단일지도체제를 국무위원회를 중심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0년까지 행정수반 없이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로 운영되었다.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사실상 임시정부를 이끌어 간 것은 백범이었다. 1932년 1월 8일 李奉昌의사의 일왕저격의거와 4월 29일 尹奉吉의사의 홍구공원의거를 추진하여, 임시정부의 존재를 되살려냈다. 그리고 1935년 5개 정당 및 단체가 통일하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할 때, 존립위기를 맞은 임시정부를 수습하기도 하였다. 민족혁명당의 결성은 임시정부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당시 국무위원 7명 중 5명이 이에 참여하면서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백범은 임시정부 폐지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7)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58~59.

8)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臨時憲章",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2005, p.3.

9) "신내각성립", 『독립신문』, 1919년 9월 16일자.

10)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臨時憲法",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2005, p.8.

11)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p.195.

12)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5호, 1926년 12월 17일.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여, 이를 기초로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갔다.[13)]

백범은 1940년 중경에서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1932년 상해를 떠난 이래 중국 각지로 피난을 다녀야 했던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였다.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강화하고,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것이다. 이는 중일전쟁이 중국대륙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강력한 지도체제와 전시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은 1940년 10월 회의에서 종전의 국무위원회 중심인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주석과 국무위원을 새로 선출하여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범은 10월 9일 주석으로 선출되었다.[14)]

주석은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이었다. 백범은 1926년 국무령으로 행정수반에 선임된 이래 중경에서 다시 주석이란 명칭의 행정수반으로 선출된 것이다. 주석은 국군인 한국광복군의 통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비롯하여, 긴급명령과 정치범을 특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가의 원수와 같은 위상이었다.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백범은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임시정부는 한국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상민 출신의 백범이 주석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백범은 주석으로 한국 최초의 국민주권 국가이자 민주공화제 정부를 유지 운영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임시정부의 광복후 독립국가 건설론

백범이 주석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는 광복 후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임시정부도 국무회의를 통해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고, 이를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건국강령'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15)]

여기에 백범이 광복 후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건국강령은 三均主義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삼균주의는 趙素昻이 창안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정치이념이 되었다. 건국강령은 이를 기초로 한 것이다. 삼균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균등사회 실현과 전인류가 균등하게 살 수 있는 世界一家를 지향하고 있다. 그 방법은 우선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생활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과 민족 ·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사회를 실현하며, 나아가 세계일가를 이룬다는 것이었다.[16)]

건국강령의 핵심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 그리고 민족구성원 최대 다수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데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 · 경제 · 교육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균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헌법에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인민의 기본권리로는 노동권 · 휴식권 · 피구제권 · 피보험권 · 면비수학권 · 참정권 · 선거권 · 피선거권 · 남녀평등권 등을,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선거권을 가지며, 만 23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인민의 자유와 의무도 규정하였다. 인민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거주 · 언론 출판 · 저작 · 신앙 · 집회 · 여행 · 시위 · 통신 등으로, 이를 헌법에 보장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의무는 법률을 지키며, 납세 · 병역 · 공공복무 · 조국건설보위 등을 들고 있다.

또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각 지방행정단위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즉 도 · 부 · 군에 각각 정부와 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를 실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권력의 중앙집권을 막고, 이를 통해 특정한 정권이나 계급에 의한 독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한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핵심의 하나는 토지의 국유화이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일제 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모두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몰수한 토지는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自力自耕人에게 분배하되, 그 순서는 고용농 · 자작농 · 소지주농 등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준다고 하였다.

대생산기관도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및 중소기업은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의 기관이나 일본인이 경영한 은행 · 광산 · 어업 · 철도 · 병원 · 전신 · 교통 · 공장 등은 모두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몰수한 재산은 무산자의 이익을

13) 조범래, "한국국민당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p. 378.

1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임시의정원2), pp. 8~9.

15)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후 민족국가 건설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pp. 527.

16) 권영건, "조소앙의 삼균주의론"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pp. 19~26.

위한 국영 · 공영의 생산기관에 공급한다고 하였다.

교육적으로는 국비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에 교육기관을 시설하되,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를, 1군 1도에 2개 전문학교를, 1도에 1개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준다고 하였다.

건국강령은 한마디로,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독립국가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며, 정치 · 경제 교육적으로 국민전체가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3. 독립국가 건설과 세계평화

1) 자주독립국가 건설

백범 김구를 이해할 때 유념할 것이 있다. 우선 한국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국민주권국가와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광복 후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백범은 이러한 경험과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소련군과 미군에 점령되었고,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자격으로 입국하도록 하였다. 백범은 개인자격으로 입국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1945년 11월 23일 환국하였다.[17]

백범은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환국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시정부 그대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환국 후 임시정부의 위상을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 일행이 온 만큼 임시정부도 입국한 것"이라고 하여,[18] 사실상 임시정부가 들어왔고, 앞으로 임시정부로 활동할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독립국가 건설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측근 嚴恒燮을 통해 발표한 환국성명에서 "오직 완전히 통일된 독립자주의 민주국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생을 바칠 결심"이라고 하여,[19]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남은 삶을 바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백범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12월 28일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소식을 접한 백범은 즉각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에 나섰다. 신탁통치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범이 반탁운동에 나선 데는 별다른 고려가 없었다. 중경에서 이미 반탁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1942년부터 연합국 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國際共同管理'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즉각 반대운동에 나섰다. 우선 외무부장 명의로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민족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20]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당시 중경에서 활동하던 좌우익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를 在中自由韓人大會라고 불렀다. 재중자유한인대회는 1943년 5월 10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소위 國際監護나 다른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21]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즉각적인 독립을 촉구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반탁운동은 중경에서 전개한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의 연장이었다.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였듯이, 신탁통치문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지자, 백범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신탁통치반대를 결의하고, 각계 인사들을 참여시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백범은 전면에 나서서 반탁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1945년 12월 30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주도하에 반탁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참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반탁운동의 물결이 크게 확산되어 갔다. 이와 함께 내무부장 명의로 포고문 國字 1 · 2호를 발표하였다.[22] 국자 제1호와 제2호는 임시정부가 전국의 행정과 경찰기구를 접수한다는 것으로, 미군정이 행사하고 있던 통치기능을 임시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미군정에 대한 주권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17)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p. 172.

18) 『자유신문』, 1945년 11월 25일자.

1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대한매일신보사, 1999), p. 52.

20) 삼균학회, 『素昻先生文集』 상, (횃불사, 1979), p. 178.

21) "大會決議案", 『獨立新聞』 창간호, 1943년 6월 1일.

22)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8, p. 121.

백범의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인 동시에 자주독립국가 수립운동이었다.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신탁통치가 이러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고 하였듯이,[23] 백범의 염원은 오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2) 자유국가 건설

백범 김구가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자유'였다. 그는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자신의 정치이념을 한마디로 '자유'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려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24] 자주독립국가는 자유국가로 건설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백범이 말하는 자유는 각 개인이 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었다.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규범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자유국과 비자유국의 구분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백범의 생각이었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일개인, 또는 일계급에서 온다"고 하였다. 백범이 고려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가였다.

백범은 자유국가의 모델로 미국을 들고 있다.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주목한 것은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이라는 절차와 방식이었다. 여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독재국과 다른 특색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독재국에 비겨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 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대 가장 큰 힘을 발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25]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백범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따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발달된 정치제도가 있다고 하였다. 백범이 들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홍문관 · 사헌부 · 사간원과 과거제도, 암행어사와 같은 제도였다.[26] 남의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나라의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백범의 생각이었다.

백범은 자유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여겼다. 언론의 자유는 독재의 폐단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백범은 정치 · 종교 ·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여, 다양한 학설과 사상이 존재하는 자유국가를 그리고 있었다. 백범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국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27]

백범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종교적 사상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8세 때 동학에 입도한 일이 있었고,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高能善의 지도로 유학을 배웠다. 이후 공주 마곡사에 들어가 승려 생활을 하며 잠시 불교에 입문한 적도 있었고, 기독교에 입교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종교적 사상적 경험을 통해 백범이 얻은 것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였다.

백범은 근대적 가치관과 서구적 생활을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가 건설하고자 한 자유국가는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나라,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였다.[28]

3) 문화국가 건설

백범이 건설하고자 하였던 또 하나는 '문화국가'였다.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것

23) 김구, 『백범일지』, p. 434.
24) 김구, 『백범일지』, p. 437.
25) 김구, 『백범일지』, p. 440.
26) 김구, 『백범일지』, p. 442.
27) 김구, 『백범일지』, p. 439.
28) 김구, 『백범일지』, p. 441.

은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범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29]

백범이 원한 것은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다. 그가 원하였던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백범의 생각이었다.

백범은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제도였고, 다른 하나는 국민교육의 완비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백범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자유'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며,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 인류의 가장 크고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교육을 꼽았다. 백범은 청년시절 황해도 장련에 光進學校를 세우기도 하고, 西明義塾과 楊山學校 교사로도 활동하였으며, 해서교육총회 학무총감으로 황해도 각 군을 순회하며 환등회 · 강연회 등 교육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쏟기도 하였다.[30] 그리고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인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그 제도와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국강령을 통해 제시한 교육정책의 특징은 국비의무교육제도였다. 교육정책의 목표는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달성한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 · 비용 · 시설 등을 관할하고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국민이면 신분이나 빈부의 차별없이 누구나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도였다.

환국한 이후에도 백범은 국비의무교육을 강조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방송을 한 일이 있다. 이는 환국한 후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다. 이를 통해 백범은 자신의 여러 가지 포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여 신민주국을 건설"하자고 하면서, "교육의 균등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의무교육을 국비로서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31] 국비의무교육 주장하였다.

백범이 주도하고 있던 한국독립당도 교육정책의 핵심을 국비의무교육에 두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은 1945년 8월 25일 제5차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해방 후 당이 추진해나갈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하여 "국비교육시설을 완비하여서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국민의 각종 교육의 경비는 일률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하여,[32] 국비의무교육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백범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이 있어야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민족의 문화를 사모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백범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고 하였다.[33]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는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이었다.

4) 세계 평화

백범 김구가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데는 목표가 있었다.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자는 것이었다. 백범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한마디로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34] 이를 위해 우리 문화가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였고,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랐다. 백범은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

29) 김구, 『백범일지』, p. 442.

30) 최기영, "백범 김구의 애국계몽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1 (백범학술원, 2003), pp. 36~37.

31)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8, pp. 111~112.

32)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8, pp. 30~31.

33) 김구, 『백범일지』, p. 445.

34) 김구, 『백범일지』, p. 435.

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35)]

인류역사상 수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들 중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백범처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백범이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평화였다. 각기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고, 그 문화의 기초위에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단계는 우선 남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고, 민족의 정신력과 문화를 발휘하는 문화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백범은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이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이를 '공상'이라 여길 수 있다는 염려도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36)]

백범은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보았다. 그 길은 각각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발휘하는 국가를 세우고, 서로 돕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아무도 못하였다고 해서 '공상'이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도 한 일이 없으니, 우리가 하자는 것이었고, 백범은 우리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35) 김구, 『백범일지』, pp. 435~436.

36) 김구, 『백범일지』, pp. 436~437.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37)]

백범은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고, 그 일을 우리 민족이 하자고 하였다. 그 길은 높은 문화를 가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먼저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세계에 모범이 되도록 하면,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범은 세계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5. 맺음말

백범 김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시기를 살아가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삶의 전부를 바친 인물이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제를 상대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만 본다면, 백범은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자일 뿐이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짓밟는 제국주의를 상대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으로 이해한다면, 백범에 대한 이해도 달리 할 수 있다.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백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로, 어떠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 해방 후 이를 '나의 소원'이란 글로 정리하였다.

백범의 독립국가 건설 구상을 이해할 때, 유념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백범은 상민출신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백범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 주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욱이 임시정부는 한국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국민주권국가이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운영된 민주공화제 정부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백범이 건설하고자 한 것은 '자주독립국가'였다. 그가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연합국 사이에서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을

37) 김구, 『백범일지』, p. 443.

때, 또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에 적극 반대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방해되기 때문이었다.

백범이 건설하고자 한 것은 '자유국가'였다. 백범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한마디로 '자유'라고 하였고, 누구보다도 독재를 배격하였다. 독재정치가 국민의 개인생활은 물론이고, 민족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범은 언론 · 정치 · 종교 · 사상의 자유가 꽃을 피우며 인류의 지고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곧 '자유국가'였다.

백범이 건설하고자 한 것은 '문화국가'였다. 문화국가는 자주독립국가와 자유국가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백범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상의 자유와 교육이었다. 사상의 자유와 교육이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라고 본 것이다.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데 있었고, 그가 바란 것은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이었다.

백범은 세계 평화를 꿈꾸고 있었다. 백범은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았다. 그 길은 우선 남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를 세워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는 문화국가를 세워 서로 돕고 사는 것이었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주독립국가, 자유국가, 문화국가였다. 백범은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석 유영모의 평화 사상: 국가주의적 폭력의 해체와 민주 평화 사상의 확립

박재순(한신대)

I. 시대배경과 유영모 평화사상의 특징

1. 유영모의 시대배경과 사상적 특징

다석 유영모(1890~1981)는 국가주의적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평생 동안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의 식민통치, 1~2차 세계대전, 남북분단과 전쟁, 5 · 18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국가주의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야만과 폭력을 보았고 1~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국가주의적 광기와 혼란을 느꼈고 남북분단과 전쟁에서 국가주의적 폭력의 잔혹과 파괴를 겪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 속에서 그는 기독교신앙, 과학적 진리정신,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민주 평화의 정신과 사상을 확립하는데 힘썼다.

그는 나라가 주권을 잃었던 1905년에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고 서구정신과 문화를 익혔으며 경신학교에서 기독교사상과 과학을 배웠다. 1910~1912년에 오산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서 가르쳤다. 오산중학교는 안창호가 조직한 신민회의 강령과 목적에 따라 이승훈이 세운 학교로서 민주정신, 민족정신, 진리정신이 사무친 학교였다. 안창호와 이승훈은 민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깨워 일으켜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독립운동을 일으켰다. 민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받들어 섬기면서 깨워 일으키려 했던 교육독립운동은 삼일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승훈은 삼일운동을 이끌었으며 함석헌은 삼일운동

에 참여했다가 오산중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친 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다. 삼일운동 직후에 오산중학교에서 유영모와 함석헌은 교장과 학생으로 만나서 사제관계를 맺었다. 70대 초반에 유영모는 이승훈과 함석헌이라는 두 벽 사이에서 살았다고 고백하였다.[1] 이러한 그의 고백은 그의 삶과 정신이 한국근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임을 말해준다. 그는 신민회, 오산학교 삼일독립운동을 움직인 민주정신에 사무쳐서 살았으며,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의 정신사적 흐름 속에서 민주정신과 평화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1912년에 일본 도쿄에 유학하여 물리학교를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을 받은 후 깊은 고민 끝에 대학공부를 포기하고 농사지으며 살기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일본제국시대의 대학 이념은 부국강병과 입신양명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남에게 일시키고 놀고 먹으며 족보 자랑하는 양반도덕으로 망했다고 보았다. "지식을 취하려 대학에 가는 것은 편해 보자, 대우받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은 양반사상, 관존민비 사상입니다." 그는 "이마에 땀 흘리며 사는 농부"를 이상으로 알았다. 이마에 땀 흘려 일해서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돕고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다.[2] 지배와 수탈을 통해 부국강병을 추구한 국가주의의 폭력에 맞서 그는 일하며 섬기는 평화의 삶을 추구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짐은 자기가 지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과 더불어 살려고 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노동자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부자(富者)의 차림을 하고는 못 나가겠습니다."[3] 그는 철저하게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과 더불어 살려고 하였다. 권력과 부를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대신 참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역사와 사회의 바닥으로 내려간 유영모는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민중에 대한 국가주의적 지배와 폭력을 해체하고 민중과의 화해와 평화에 이르렀다.

유영모는 민중의 삶 속에서 국가주의적 전쟁과 폭력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이르려고 했다. 국가주의적 전쟁과 폭력의 뿌리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의 이념과 충동에 있다. 그러한 국가의 이념과 충동은 인간의 일반적인 지배욕과 소유욕에서 나온 것이다. 지배욕과 소유욕에서 전쟁과 폭력이 나왔다면 전쟁과 폭력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여는 일은 정치군사적인 노력으로만 성취될 수 없고 지배욕과 소유욕과의 진지한 대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배욕과 소유욕은 원초적 생명의지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 자체와의 진지한 대결과 성찰이 요구되고 삶을 정화하고 승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쟁의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영모는 평화를 위한 삶과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였다. 평화의 삶을 위한 그의 진리탐구와 실천은 일제의 군국주의가 지배하는 시기에 그리고 6.25전쟁을 거쳐 남북분단과 군사독재가 지배하는 폭력적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국가주의적 평화에서 민주적 평화로

부국강병을 추구한 제국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룩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가져왔지만 지배와 정복, 억압과 수탈의 폭력을 내포한 평화다. 로마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룩한 '로마의 평화'는 전쟁이 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과 수탈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 민중에게는 참된 삶의 평화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의 평화일 뿐 역사와 사회의 바닥에서 고통당하는 대다수 민중의 평화가 아니었다. 나라를 잃고 헤매며 강대한 제국들의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평화 '샬롬'(Shalom)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조화, 충만, 완전, 번영, 복지, 평안'을 의미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삶의 기쁨과 실현이었다.

민중에게 참된 평화는 삶의 충만한 실현과 완성이다. 다석의 제자로서 평화운동에 앞장섰던 함석헌은 평화를 삶의 역동적 실현으로 보았다. 함석헌은 평화를 폭력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그 폭력의 구조를 깨트리고 일어나는 생명운동으로 파악하였다. 함석헌에 따르면 평화는 "씨울(grassroots)이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의 평(平)이란 글자는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평화의 평(平)이란 글자는 "막힌 기운을 활짝 열어 젖혀서 쑥쑥 발산되도록 하는 뜻"을 가진 것이며 "단순히 기계적 물리적 정지상태라기 보다는 갇히고 눌리는 기운을 헤쳐서 자유롭게 발산시킨 때에 오는 시원한 정신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격동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것", "속 정신이 활발하게 피어오르는 것"이다.[4]

사회역사적 폭력의 구조를 깨트리고 민중의 삶을 실현하고 펼치는 것으로 평화를 이해하는 함석헌의 평화이해는 민중의 삶 속에서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민주정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다석의 평화이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유영모와 함석헌의 이런 평화이해

1) "서(西)에 함옹이 있으면 동(東)에 남강선생이 있어 커다란 벽 둘레 안에 내가 있다고 믿었다오." 유영모, "제자 함석헌을 말한다.", 『올다이제스트』 1964년 12월호. 다석일지(영인본) 상. 688쪽. 이승훈과 함석헌이 다석의 벽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다석의 정신세계를 지켜주고 다석이 의지하는 존재였음을 밝힌 것이다.

2) 박영호『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上), (서울: 두레, 2001), 204쪽.

3) 박영호『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서울: 두레, 2001), 227-228쪽 참조.

4) 함석헌, "세계구원과 양심의 자유", 함석헌전집9권. (서울: 한길사, 1983). 293쪽.

는 저명한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이해보다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다. 요한 갈퉁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였다.[5] 구조적 폭력은 기아, 빈곤, 의료시설부족, 인종차별, 무질서, 환경오염, 여성차별, 종교갈등을 포함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평화는 생명과 정의의 충만한 실현(샬롬)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갈퉁의 평화이해가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자의 객관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유영모와 함석헌의 평화이해는 민중의 삶 속에서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해가는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유영모가 살았던 한국현대사는 봉건왕조의 신분적 체제에서 벗어나 민의 주체를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국가주의적 폭력에 맞서 민의 주체적 삶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었고 국가민족의 지역적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나 동서정신문화가 합류하여 세계 보편적 시민정신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그의 평화사상은 낡은 봉건적 신분질서와 사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과학적인 주체적 정신을 확립하는 해방의 사상이고 국가주의적 폭력에 맞서 민의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실현해가는 정의로운 삶의 사상이고 민족 국가의 지역적 문화적 한계(편견)를 넘어서 소통과 일치를 추구하며 세계 보편적인 사상과 정신을 확립하는 대종합의 사상이었다.[6]

Ⅱ. 평화사상의 내용

국가주의 폭력을 극복하고 민중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유영모의 평화사상은 민의 평화사상이고 삶의 평화사상이었다.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삶의 주체인 맘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맘의 평화를 이루려면 맘의 핵심이고 주체인 정신(생각)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또 정신의 평화를 이루려면 정신의 근원과 목적인 하늘(神)의 평화에 이르러야 했다. 따라서 그는 민, 삶, 맘, 정신, 하늘의 평화를 추구했다. 그의 평화사상을 민의 평화, 삶의 평화, 맘의 평화, 정신의 평화, 하늘의 평화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5)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ed.) Mattew Evangelista, Peace Studies.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1. New York. 2005. 27.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1966. 2ff.

6) 동서사상을 회통하는 유영모의 민주평화철학에 대해서는 박재순, 《다석 유영모–동서사상을 아우른 생명철학자》(서울, 홍성사, 2017 참조.

1. 민의 평화: 서로 주체의 확립과 가해자·피해자의 화해와 평화

다석이 추구한 민의 평화는 국가주의적 평화와 대립된 개념이다. 국가주의는 민을 국가의 구성요소와 기능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이념을 민보다 우위에 둔다. 민은 국가의 이념과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힘에 지나지 않는다. 민은 제국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이거나 국가의 산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력이며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민주 국가에서 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과 주체이며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민이 국가의 실체일 뿐 아니라 중심과 목적이다. 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자체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원천이다. 민은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철저한 민주주의자였던 유영모에게는 민이 곧 나라였다. 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와 나라를 직결시켰다.[7] 그는 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가 주체로서 자기 선언을 한 것이 나라라고 하였다. '나'가 '나!라'고 한 것이 '나라'라는 것이다.[8] 민과 국가를 직결시킴으로써 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와 폭력은 해체된다.

민을 국가의 실체와 주체로 보는 다석의 평화사상은 민을 국가의 구성요소와 기능, 힘과 자원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평화사상과 대립된다. 부국강병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고 희생시키는 국가주의 권력은 민의 평화를 해친다. 국가가 생겨난 고대 국가사회 이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은 국가권력의 통치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민을 국가의 통치(정치)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근현대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이성적 통치를 말한 플라톤에게서도 민은 언제나 통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민본사상과 역성혁명을 말한 맹자의 경우에도 민은 통치의 대상일 뿐 통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부국강병을 내세운 국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민은 국가의 구성요소와 자원으로서 통치의 대상이었다.

국가주의적 폭력을 해체하고 민의 평화를 이룩하려면 민을 국가의 주체로 확립하는 사상과 철학이 요구된다. 역사와 사회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근현대의 개념이다. 동서양 어디에도 역사와 사회의 주체를 나타내는 개념은 없었다. '主體'(주체)란 말은 정치, 사회, 교육, 종교, 철학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에서 주체를 나타내는 'subject'는 고대와 중세의 용어다. '아래 던져진, 아래 놓인'의 뜻을 가진 'subject'는 지배 권력과 체제에 예속된 신민(臣民)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에도 동양에도 주체를 의미하는 말은 없었다.

7) 유영모, "긋 끝 나 말씀", 柳永模. 『多夕日誌, 上』, [영인본] 김흥호편 1982, 736쪽.

8) "'나! 라'며 나아온 '나'와 '나!라'며 나아온 '남'이 서로 엇 바뀔 때 마닥 '나는 나라!'고" (다석일지 1963. 7. 26)

한국에서 민의 주체를 확립해간 사상가는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이다.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처럼 '나'란 말을 주체의 의미로 강조하고 앞세우고 중심에 놓은 사상가는 없다. 특히 유영모는 '몸나', '맘나',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서의 '제나', 얼과 혼의 주체로서의 '얼나'를 말했고 '나'가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9] 그리고 '나'가 타자에 대하여 무한히 열린 개념으로서 '우리'와 일치하고 통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내가 참된 나가 될 때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유영모가 말한 주체로서의 '나'는 이성적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생명과 역사와 사회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생명과 역사와 사회의 주체였다. 그리스철학에서 칸트에 이르는 서구철학에서 주체는 언제나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성적 주체였다. 이성적 주체는 인식대상을 타자화 한다. 자기 자신까지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이성적 주체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대립과 갈등에 빠진다. 이성적 주체는 죽고 다시 날 수 없고 개혁과 혁신, 개조 될 수 없고 민의 공동체적 연대와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 다석의 주체는 생명과 역사 사회를 창조 개혁하는 주체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고 개혁되고 죽어서 다시 사는 '나'다. 다석에 따르면 '나'는 생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에게 '나'는 몸의 나에서 맘의 나로 맘의 나에서 역사와 사회의 나로 역사와 사회의 나에서 얼과 혼의 나로 새롭게 태어나고 솟아오르며 나아감으로써 갱신되고 고양되는 것이다.[10] 인간의 이성적 주체는 개조와 갱신이 없는 고정된 것이며 인식대상인 타자와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에 이를 수 없다. 유영모가 말한 인간의 주체는 생명과 역사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고 탄생하는 열린 주체이며 타자와 평화로운 일치와 공존에 이를 수 있다.

유영모는 민의 평화를 위해서 민을 국가의 주체로 확립했을 뿐 아니라 민의 존엄과 가치를 밝혔다. 민을 나라의 중심과 꼭대기로 볼 때 국가주의적 폭력을 해체하고 민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그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와 집을 짓고 옷감을 짜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국가를 먹이고 돌보는 부모라고 하였다. 통치자인 왕과 관료는 부모이고 민은 자녀라고 본 전통 유교의 관점을 뒤집어서 유영모는 민이 나라의 부모라고 하였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우리나라 농부는 우리의 어머니시다.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듯이 농부는 농사를 지어준다. 마음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이는 우리의 어머니다. 땀 흘려 김매는 농부는 어버이의 상(像)과 같다."[11] 민을 나라의 부모로 보는 관점을 그는 『대학(大學)』의 '친민(親民)'을 '씨알 어뵘'(민을 어버이 뵈옵듯 함)으로 풀이함으로써 표현하였다. 다석이 민을 국가의 부모로 이해한 것은 국가권력과 민 사이의 적대와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일치에 이른 것이다. 민을 국가의 부모로 이해할 때 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억압과 지배는 해소되고 국가권력은 민을 섬기고 받들고 돌보는 도구적 기능과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배와 정복을 추구하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배 권력층의 관점에서 보면 민은 국가권력체제의 바닥에서 힘들고 성가신 일을 해야 하는 하찮은 존재들이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지배 엘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민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들이다. 유영모는 이러한 지배 엘리트의 관점을 철저하게 뒤집는다. 다석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햇볕에 그은 얼굴에서 노자가 말하는 진인(眞人)의 경지인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보았다.[12]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4장에 나오는 "화기광 동기진(和其光 同其塵)"(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같아짐)은 이상적인 진인(眞人)의 모습을 나타낸다. 가난하고 힘없고 어리석고 못나 보이는 농부의 검은 얼굴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봄으로써 다석은 국가주의적 권력의 폭력적 지배를 해체하고 민에게 최고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고 민을 국가의 중심과 정점에 둔다.

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를 해체하고 민을 국가의 중심과 절정에 놓음으로써 유영모는 국가 사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일치에 이르고 민의 평화를 이룬다. 민은 역사와 국가사회의 무거운 짐을 진 희생자들이다. 민은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외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역사와 사회를 지탱해 온 민은 억압과 수탈과 소외의 대상이었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도덕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유영모는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는 민에 대한 지배 엘리트의 오만한 관점을 철저하게 뒤집었다. 그에 따르면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민중이 역사와 사회의 구원자다. 그는 역사와 사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역사와 사회를 지탱해온 민을 인류의 구원자 예수와 일치시켰다. 고난 받는 민중은 "우리 대신에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더러움을 대신 지는 어머니, 농민, 노동자는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예수"[13]다.

가난한 민중은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와 사회(국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사회를 구원하는 희생양이요 이들의 삶이 세상을 구하는 희생제사이다. 가난한 민중이 '고난의 종' 메시아다. "종교가 양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짓밟는 종교가 되지 않겠나? 자본주의나 유물사상이 모두 양반종교 아니겠나?...세상에 예수처럼 내가

9)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서울: 두레, 2002), 108쪽.

10) 유영모, "정(2)", 『多夕日誌, 上』(영인본), 상, 740~741쪽.

11) 박영호 엮음,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 씨알의 메아리』 (서울: 홍익재, 1993), 180쪽.

12)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上), 42쪽.

13) 유영모,"짐짐" 『多夕日誌 上』, 792쪽.

십자가를 지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고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놈만 가득 찼다."[14] 서로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려다 보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흉악해진다. 서로 남의 짐을 지려할 때 정의롭고 평화로운 밝은 세상이 온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민중이 사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사회와 역사의 죄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민중이 고난을 겪으며 신음하는 것이다. 불의와 전쟁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은 어디 있을까?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지식인들의 주장에서 그 지름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민중의 실상을 보고 고난 받는 민중의 신음소리와 절규를 듣는 데서 그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철학

부국강병, 지배와 정복을 추구한 국가주의는 민에 대한 폭력을 가져오고 민에 대한 국가주의적 폭력은 국가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낳는다. 국가주의적 지배체제 안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지배층은 가해자로 되고 고난과 희생을 당하는 민은 피해자가 된다. 독일국가주의 지배체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처형되었다. 아우슈비츠는 국가주의 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상징과 표상이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민중은 '위안부'로 상징되고 표상된다. 가해자인 국가권력과 피해자인 희생자들 사이의 화해가 없이는 국가사회가 평화에 이를 수 없다. 유영모는 국가주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을 국가의 부모로 높이고 햇볕에 그은 농부의 검은 얼굴을 화광동진이라고 하고 국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민중을 오늘의 예수(구원자)라고 함으로써 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와 이념적 정당성을 제거한다. 민은 국가권력의 통치대상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치의 근원이고 주체다.

국가권력의 희생자와 피해자인 민을 끝까지 주체로 보는 유영모의 사상은 국가권력의 희생자를 타자로 본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와 구별된다. 레비나스는 '존재저편의 선'이라는 플라톤의 정식을 지표로 삼아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초월의 윤리를 제시한다. 그에게 자아는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난 의식으로서 자기의 존재에 묶여 있는 관념적 주체다. 인간의 이러한 주체는 타자를 만남으로써 자기를 초월하여 윤리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가 존재의 세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이데아의 세계를 지표로서 끌어들였지만 자기 존재에 사로잡힌 인간의 자아를 자기의 존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은 유대(히브리)적 '절대 타자의 초월적 하나님'이다. 그는 시공간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아의 윤리적 초월을 추구한다.[15] 그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은 신을 드러낸다. "타인은 저 높은 것(hauteur)의 현시이며, 이 현시 속에서 신은 나타난다."[16] 레비나스가 존재의 동일성과 전체성을 부정하고 타자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한 것은 타자의 주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 철학은 공동체적 협동과 사귐에 이를 수 없다. 나의 이웃인 타자가 무한히 초월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한 '나'와 가까이 사귈 수도 없고 서로 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17]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철학이 지닌 이런 한계는 민의 역사적 주체를 몰랐던 고대세계의 플라톤철학과 히브리신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은 구체적 인간의 역사 사회적 존재를 부정하고 초월하는 이성적 이념(이데아)을 앞세워 민에 대한 이성의 지배와 통치를 주장했다. 제국주의적 폭력 앞에 무력했던 히브리인들은 무력한 자신들을 구원할 절대적 초월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 인간의 역사적 존재와 주체를 부정하는 이런 고대의 철학과 사상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서로 주체로서 민의 정의와 평화에 이를 수 없다.

레비나스의 철학에서는 타자의 초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나'의 자리는 지나치게 약화되고 좁아졌다.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와 나치스의 국가주의적 폭력을 경험한 레비나스의 철학은 인간 이성의 주체와 국가사회 집단의 지배에 대한 부정과 거부를 담고 있다. 그의 철학과 정신의 바탕을 이루는 탈무드와 히브리 전통은 제국주의적 지배와 폭력에 대한 아픈 경험과 저항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 전통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 타자로서 제국주의적 집단의 주체와 피압박 민족의 주체를 압도한다. 유대인(히브리) 철학자 마틴 부버가 '영원한 너'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규정했듯이 레비나스도 무한히 초월적이고 이질적인 타자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규정한다.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적 인간이해는 인식대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성적 주체에 대한 극복과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성적 주체가 인식 주체와 인식대상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적 인간 이해도 가해자와 피해자(희

14) 유영모, "짐짐", 『多夕日誌 上』, 791~2쪽.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564쪽.

15)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서울: 민음사, 2009), 7~8, 148, 160~163, 215쪽 이하 참조.

16)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ti(la Haye: Maritinus Nijhoff, 1961) 51쪽. 서동욱 "옮긴이 해제",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에서 존재자로』 216~217쪽에서 재인용.

17) 레비나스에 따르면 주체로서의 자아와 타자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이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이고, 이런 의미의 평등만이 약자를 착취하는 강자의 법을 폐기할 수 있다."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 190쪽 참조. 레비나스는 주체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세계를 향유하고 즐기는 주체다. 이것은 거주와 노동을 통해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둘째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지배할 수 없는 타자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이 성립된다. 강영안, "해설: 레비나스의 철학", 에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2), 149~150쪽.

생자)의 서로 주체적 만남과 일치, 화해와 평화에 이르기 어렵다. 타자의 초월성과 선험성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은 국가사회의 구체적인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서로 주체로서 만나기 어렵다. 가해자 또는 제삼자가 피해자(희생자)와 서로 주체로서 만나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평화에 이르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체가 존중되고 갱신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언제나 낯설고 초월적인 타자로 머물러 있는 레비나스의 철학에서는 피해자의 초월적 타자성 앞에서 인간의 주체는 작아지고 약화되며 피해자 자신도 그의 초월적 타자성 속에서 대상화, 타자화 되기 쉽다.

인간을 역사와 사회의 창조적 주체로 확인한 근현대에서는 인간의 주체 속에서 주체의 근거와 목적을 찾을 뿐 아니라 자기부정의 근거와 자기초월적 힘도 인간의 주체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유영모는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지배와 폭력을 경험했고 히브리 기독교 전통을 깊이 받아들였으면서도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철학을 형성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피해자)인 민을 나라의 부모, 구원자로 봄으로써 유영모는 피해자의 주체를 끝까지 존중하고 강조했다. 희생자를 타자로서 강조하고 존중하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과 위안부 문제를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타자 중심의 레비나스 철학은 희생자들을 대상화, 타자화 하기 쉽다. 위안부는 희생자로서 결코 우리의 타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위안부도 자신의 삶과 역사의 주체다. 국가주의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일치에 이르려면 피해자들을 타자로서 보기 보다는 주체로서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자기의 아픔과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국가주의의 폭력과 불의를 드러낼 때 국가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희생자인 피해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야 한다.

유영모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서로 주체로 보는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인식론과 존재론을 제시한다. 그는 먼저 인간의 주체를 생명과 역사를 스스로 형성하고 변혁하고 창조하는 주체로 파악하고 인간의 자기 존재의 속의 속에서 초월을 추구한다. 인간 본성의 속의 속에서 초월자인 신을 만남으로써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의 존재를 갱신, 변화, 고양시킨다. 타자와의 만남에서 자기 존재로부터의 초월을 추구한 레비나스와는 달리 유영모는 자기 존재의 속에서 자기부정과 초월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서로 주체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화해와 해방에 이른다.[18] 주체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한 경험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레비나스는 독일의 제국주의적 폭력을 무력하게 개인으로 체험했다. 일본 제국주의적 폭력에 맞서 민족을 주체로 깨워 일으키는 안창호 · 이승훈의 민족독립교육운동에 참여했던 유영모는 근현대의 한국 민중과 함께 자기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그리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 국가주의적 폭력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극복하였다. 삼일혁명과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민은 자기의 존재와 삶뿐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다.

민을 생명과 역사의 창조자적 주체로 파악한 유영모는 인식주체뿐 아니라 인식대상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깊이와 존엄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과 생명체뿐 아니라 만물, 물체까지도 이성적 인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한없는 깊이와 값, 의미와 연관을 지닌 주체로 이해했다. 다석은 물체를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물질의 주체'로 보았다. 다석은 물질의 주체를 물질의 '머사니', '거시기'라고 했다.[19] 분명하게 특정지을 수 없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 '머사니'와 '거시기'[20]는 사물과 물건의 본질이 특정한 개체 속에 있는 것이면서 '전체적 하나'(全一)와 연결된 것임을 나타낸다. 모든 사물과 물체는 전체 '하나'와 이어져 있고 사물과 물체의 주체와 본질은 전체적인 '하나'이다. 다석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그 밑뿌리를 '머사니', '거시기'라고 하고 '머사니'는 '하나'라고 하였다. '하나'로서 '머사니'는 "하늘과 땅의 뿌리"다. 이처럼 다석은 '하나인 전체'를 나타내는 '머사니'를 물건의 주체와 본질로 봄으로써 주체와 본질을 일치시키는 역동적이고 일원적인 물질관을 제시한다. 모든 물체는 전체 하나와 이어지고 전체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한없이 깊고 신령한 것이다. 물체는 주체로서 무한한 깊이를 가지며, 우주 전체와 연결된 신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질의 주체이며 본성인 머사니를 탐구하면 끝없이 새로운 것이 나온다. 물체의 '참'(진리)을 따져 나가면 그 물체에서 새로운 것이 주체로서 자꾸 나온다. 이처럼 새롭게 나오는 것이 참(진리)이다.[21] 다석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개물성무(開物成務)를 "천하의 모든 현상과 물건의 이치와 그 뜻이 변하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완전히…연구해서" "물건이 점점 더 열리게 하여"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된다."고 했다.[22] 이성적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물체를 주체로 봄으로써 인식주체인 인간과 인식대상인 물체는 서로 주체로서 화해하고 서로 실현되고 완성함으로써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에 이른다.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서로 주체로 보는 다석의 인식론과 존재론은 물체뿐 아니라 일, 기관, 조직, 단체까지도 존재의 깊이와 역사를 가진 주체로 보게 함으로써 나와 상대, 주체와 대상을 본성과 이치에 따라 서로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 수 있다.

18) 유영모, "매임과 모음이 아니!", 『다석일지 상』(영인본), 742~3쪽.

19)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250, 237쪽.

20) 김민수 · 홍웅선 편,『다목적 종합 국어사전』 (서울: 어문각, 1977), '거시기'에 대해서는 67쪽, '머사니', '머시'에 대해서는 474쪽 참조.

21) 유영모, 『다석강의』 (현암사, 2006), 237, 248~252쪽.

22)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서울: 두레, 2002), 435쪽. 『다석강의』, 227쪽.

2. 삶의 평화: 알맞게 사는 중용의 평화

1) 국가주의 폭력과 생명의 대립

부국강병과 약육강식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는 그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민을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능한 인간과 무능한 인간으로 분열시키고 국가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위계질서를 확립한다. 국가주의적 폭력은 민의 삶의 주체를 억압하고 훼손하며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국가전체의 통일성을 깨트린다. 국가주의가 내세우는 전체는 언제나 거짓된 위장된 전체이고 국가주의적 통치는 언제나 억압적이고 위선적인 독재다.

생명은 스스로 하는 자발적 주체를 가진 것이며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자발적 주체로서의 '나'는 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초점을 가진 것이고 생명의 유기체적 전체성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생의 원리와 본질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이며 지배와 정복을 추구하는 국가주의의 조직 및 이념과 상충된다. 스스로 하는 주체와 전체의 통일인 민의 삶을 자원과 병력으로 보고 동원하고 통치하는 국가는 반드시 민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한다. 민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국가주의적 국가는 필연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대변하는 조직이며, 합법적 폭력(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민의 자발적 주체성을 억압한다.

민을 국가의 주인과 주체로 본 다석의 민주적 국가관은 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본 플라톤의 국가주의적 국가관과 대조된다. 유영모와 플라톤이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국가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플라톤은 인간이 욕망, 감정, 이성으로 구성된 것처럼 국가는 농민, 군인, 철인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국가를 구성하는 농민은 탐욕으로 움직이고 군인은 감정(용기)으로 움직이고 철인 왕은 이성으로 움직인다. 이처럼 개인과 국가는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욕망과 감정은 노예 또는 짐승이고 이성은 주인 또는 마부다. 욕망과 감정은 이성의 통치와 지배의 대상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농민과 군인은 국가의 구성요소와 기능이며 이성적 통치의 대상일 뿐 통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생각한 이상적 국가는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다. 이성의 통제와 지배 아래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자유로운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철인왕의 독재적 통치 아래서 민의 삶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성의 지배와 통제 아래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문제꺼리였다. 감정을 고통과 문제꺼리로 보는 이성주의적 관점은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 신학을 거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유지되었다. 감정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파토스(pathos)는 신약성서와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하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였고 병리학(pathology)이란 말에서 보듯이 질병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감정은 삶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서다. 감정을 고난과 질병으로 보는 이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삶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유영모에 따르면 '내'가 '나!라'고 주체를 선언하고 나서는 것이 '나라'다. 개인의 나와 국가(나라)를 일치시킨 것은 플라톤의 국가이해와 일치하지만 민을 주체로 보고 주체로서의 민과 국가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유영모의 민주적 국가이해는 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본 플라톤의 국가이해와 다르다. 유영모는 민을 국가의 어버이(부모)로 보고 역사와 사회의 구원자로 보았을 뿐 아니라 천자(天子, 하나님의 아들)로 봄으로써 고대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와 같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유영모는 민을 국가와 통치권력의 주체로서 높였다는 점에서 민을 주체로 보는 국가이해를 분명히 드러냈다. 민주(民主)를 '민(民)이 주(主), 주님'이라고 이해함으로써 그는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국가이해를 확고하게 제시했다.[23]

인간의 존재 구조에 대한 유영모의 이해를 살펴보면 플라톤과 유영모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존재구조를 욕망, 감정, 이성으로 파악한 플라톤과 달리 유영모는 몸, 맘, 얼로 파악했다. 유영모는 몸, 맘, 얼을 생의 서로 다른 차원을 지닌 주체와 전체로 파악하였다. 몸과 맘과 얼이 서로 다른 주체와 전체로서 저마다 그리고 함께 실현되고 완성됨으로써 인간 안에서 내적 통일과 평화에 이른다고 본 것이다. 인간 존재의 내적 통일과 평화의 원리를 유영모는 '몸성히, 맘놓아, 얼(뜻)태워'로 제시하였다.[24] '몸성히'는 몸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다. 몸성히는 몸을 주체와 전체로 몸의 본성과 이치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다. 몸이 성하면 맘이 편안하고 놓이게 된다. 그러나 몸이 성한 것이 맘이 놓이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몸이 성하고도 맘이 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몸이 성하지 않아도 맘이 평안하고 놓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몸이 성할 때 맘이 놓인다. 맘이 놓인다는 말은 맘이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말이다. 맘이 놓인다는 것은 맘이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자유롭고 온전하다는 것이다. '맘 놓아'는 맘의 주체와 전체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얼 태워'는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주체인 얼과 뜻을 불태워서 자기부정과 초월을 통해서 솟아올라 나아간다는 말이다. 얼과 뜻을 불태워서 솟아올라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정신은 고양되고

23) 유영모, 《多石日誌上》, 김흥호 엮음 (영인본, 1982), 20~21, 43쪽. 이에 대한 설명은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102~5쪽 참조.

24)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223~4쪽.

정화되며 진화하고 전진한다.[25)]

몸의 욕망과 맘의 감정과 지성, 얼의 영성이 저마다 주체와 전체로 존중되고 실현되며 전체가 하나로 통합될 때 평화가 온다. 몸이 성하고 맘이 놓이고 얼과 뜻을 불태움으로써 생명과 정신은 새로워지고 승화되며 역사와 사회는 고양되고 진화, 진보한다. 유영모에게 삶의 평화는 관념적이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개혁적이며 자기부정과 초월을 통해 변화와 고양을 이루는 것이다. 몸과 맘과 얼이 새롭게 변화되고 고양되고 자기를 부정하고 초월하여 새롭게 태어날 때 몸, 맘, 얼의 통일과 평화에 이른다. 몸, 맘, 얼의 통일과 평화에 이를 때 인간의 삶은 이웃(타자, 적대자)과 함께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몸이 성하고 맘이 놓여서 얼과 뜻이 솟아올라 나아가면 민은 서로 주체가 되어 함께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올라가고 나아감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고 높여서 정의와 평화 속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2) 몸, 맘, 얼에 알맞은 중용(中庸)의 평화로운 삶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몸이 성하고 맘이 놓이고 뜻을 불태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몸성히 맘놓아 뜻태워 살려면 몸, 맘, 얼에 알맞게 살아야 한다. 인간 생명의 구성요소이며 주체인 몸, 맘, 얼은 수 십 억 년 생명진화와 수 백 만 년 인류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온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이면서 창조자인 몸, 맘, 얼은 깊고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면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고 통일된 것이다. 몸, 맘, 얼은 서로 다른 존재의 차원들을 가진 것이다. 몸은 물질 · 신체적인 생명의 차원을 가지고, 맘은 욕망과 감정과 의식을 지니고, 얼은 뜻과 혼을 지닌 것이다. 서로 차원이 다르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상충하면서도 서로 주체로서 일치하고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 맘, 얼은 그 자체가 평화와 통일의 놀라운 상징이고 실재다.

몸, 맘, 얼은 저마다 속에 생명진화와 인류역사의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되고 체득한 큰 힘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평화롭고 통일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몸, 맘, 얼에 축적되고 체현된 힘과 지혜를 잘 살려내서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맘, 얼에 알맞게 먹고 자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의 몸, 맘, 얼에 알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내게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내게 알맞게 하려면 내가 먼저 알맞게 되어야 나에게 알맞게 행동할 수 있다. 유영모는 알맞게 사는 삶을 먹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몸은 과식에서 탈이 난다. 너무 적게 먹어도 몸은 탈이 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난다. 몸이 필요한 만큼 알맞게 먹으면 몸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을 함으로써 물질적 음식에 대한 의존과 집착, 물질적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몸과 맘속에 깊이 잠겨 있는 생명의 힘과 지혜가 살아나서 삶의 평화와 통일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은 생존의 필요와 몸의 요구를 넘어서 너무 많은 생명을 잡아먹는다. "식사는 먹거리의 장사(葬事: 장례 지내는 일)다. 우리의 입이란 열린 무덤이라 식물 · 동물의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다…풀 한 포기도 살려는 생물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 종일 산 것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26)] 욕심으로 먹기 때문에 과식하고 과식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도 병들어 죽어간다. 다석에 따르면 우주자연세계도 인간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 허물'(병)이 생긴다. 우주의 빈탕(허공)에 몬(물질)이 지나치게 가득차면 '속 허물'이 생기고 사람의 몸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 허물'이 생긴다. 그리고 이 '속 허물'에서 '속 쓰림'이 나온다. 다석은 우주자연세계도 큰 쓰림이 있고 한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석은 우주도 사람도 탈이 나면 먹기를 끊고 몸과 마음을 곧게 해야 낫는다고 보았다: "큰 빈탕에도 큰 쓰림이 있느니라. 이것이 한늘[우주]의 한숨이다. 한늘이나 사람이나 탈은 고디[貞]를 직혀야만 곧힌다. 속이 쓰린 것이 낫도록 먹기를 끊는 것이 고디다."[27)] 과식하는 것은 물질의 유혹에 매이고 굴복한 것이며 물질과 물질의 유혹에 매이고 굴복하는 것은 생명의 주체적 자유와 전체적 통일을 잃은 것이다. 금식을 하면 맘과 정신의 주체가 곧고 자유로워지며 주체가 곧고 자유로워질 때 생명 전체가 통일과 평화에 이른다.

유영모는 굶을 때 생명 자체의 평화와 통일에 이를 뿐 아니라 '나'의 생명과 우주만물 사이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1957년 2월 2일의 일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120시간 숨만 쉬고 설교하니 입술이 마른다. 물을 먹고 자고 일어난 오늘은 퍽 피곤이 풀린다. 바람이 양식이요 물이 양식인 것을 깨닫는다. 낟알이 양식이거니 못하고, 고기 약재(藥材)를 생각하는 것은 숨결과 물이 밑바탕 됨을 잊어버린 것이다." 1960년 3월 11일에 금식한 후 느낌을 쓴 일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2~3일만 안 먹고 안 마시고 보면 살에 닿는 바람이나 낯에 닿는 물이 마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과 같이 시원하다 · · · 저(自己)가 받을 수 있게 되는 터(환경)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빛, 소리, 냄새, 맛, 맨치[만짐], 올[이치]) 먹이(食物)가 되는 생리(生理)가 있는 것 같다." 다석은 모든 신체감각과 앎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먹이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사람은 오늘 먹은 밥알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수 억 년 동안 바람과 물을 마시면서 길러진 생명의 힘이 몸속에 쌓여있고,

25)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71~2, 82~5쪽.

26)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19쪽.

27) 1955년 11월 1일 일지. 『多夕日誌, 上』, 76쪽.

정력을 빚어 만든 기운과 기운을 승화시킨 신령한 힘이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다. 사람의 몸속에는 우주생명의 기운이 들어있고 살면서 길러온 몸과 마음의 기운이 쌓여 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길러주고 북돋아주는 자연 생명세계의 힘을 입고 사람은 살아간다. 오늘 먹은 낟알의 힘으로 사는 이는 쉽게 지치고 병들게 되지만 몸과 마음속에 숨겨진 힘으로 사는 이는 지치지 않고 생기 넘치게 살 수 있다. 삶의 깊이에서 오는 힘과 지혜가 충만한 평화를 가져온다.

우주자연생명세계도 물질이 지나치게 가득차면 탈이 나고 한숨이 나온다고 한 것은 우주의 빈탕한데와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면서 탐욕과 경쟁원리에 따라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물질적인 포만과 생태계 파괴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오늘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야말로 물질적 욕망과 물질들로 포만하여 탈이 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석의 처방대로 고디를 지켜야 곧게 하여 고칠 수 있다. 다석에게 고디는 물질적인 탐욕과 유혹, 물질의 힘과 폭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하늘 길을 가는 곧음을 뜻한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의 길로 가는 곧음이다. 다석은 정신과 영이 고디라고 한다. 물질의 탐욕과 포만에서 생긴 지구 생태계와 현대문명의 탈은 고디를 지켜 곧게 하고 곧게 함으로써 고친다. 다석에게 고디는 먹어서 생긴 병을 고치기 위해 "먹기를 끊는 것"이다.

사람은 너무 배불러도 폭력에 빠져들고 너무 배고파도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몸과 마음에 알맞게 먹어야 평화가 올 것이다. 비만으로 고민하는 현대인은 굶주림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창자가 비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그리워하게 된다. 굶주린 시간은 생명과 사랑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은총의 시간, 신령한 시간이다. 배부르면 목마르지만 배고프면 군침이 돌고 목마른 줄 모른다. 금식을 통해 병이 낫고 영이 충만해지고 정신이 살아난다.

3) 비움 속에서 두루 통하는 삶의 평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물욕과 육욕과 명예욕을 버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다석에게 "맛과 멋으로 사는 향락생활은 자살행위"이고, "주지육림(酒池肉林)이 지옥"이었다.[28] 세상살이의 기쁨과 행복에 겨워 살면 참된 삶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 다석은 뼈아픈 고독 속에서 참된 비움에 이르고 비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다. "…세상에서 최후의 불행이랄 수 있는 홀아비가 되어 보아야 신앙을 알기 시작한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어렵다. 홀아비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못할 말이지만 뼈아픈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29]

다석의 뼈아픈 고독은 단독자의 닫힌 고독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와 전체의 참된 일치인 하나님에 이르는 고독이다. 하나님에 이르는 고독과 아픔은 '나'와 '남'이 하나로 되는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적인 삶에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픔과 쓴 맛을 같이 맛볼 때에만 나와 남 사이를 가로 막는 산과 골짜기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늠실늠실 춤을 추는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30]

유영모의 일상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통일의 삶에 이르는 구도자적 도정이었다. 막힘없이 두루 통하는 평화로운 삶에 이르기 위해서 다석은 곧게 꿇어앉는 몸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꿇어앉음(一坐)은 중화(中和)이며 "하늘과 땅이 통하고 편안해지는 것"이다.(1955.12.24) 곧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끼 밥 먹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밥 먹는 일이 바로 된 다음에야 참된 말씀이 나오고 참된 말씀에 이르러야 있음과 없음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다석은 1955년 10월 28일의 일지에 쓴 '좌망'(坐忘)이라는 한시에서 "낮에는 잊고 앉아 숨 쉬고(坐忘消息晝), 밤이면 안식에 들어가 은혜롭게 잔다(寢恩安息宵). 맡은 일 쉬지 않고 하여 본성을 회복하고(復性不息課). 새벽이 되면 지성으로 말씀을 이룬다."(至誠成言曉)고 하였다.

이 시는 다석의 하루살이를 나타낸다. 앉아서 숨 쉬고, 깊이 자고, 할 일 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다석의 하루살이다. 다석의 하루살이는 하나로 뚫린 삶이었다. 꿇어앉음으로 몸이 뚫리고(一坐), 한끼 식사로 생명이 뚫리고(一食), 한 말씀으로 생각이 뚫리고(一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신이 뚫린다(一仁), 하나로 뚫린 다석의 삶은 몸으로는 하늘과 땅의 우주와 통하고 목숨으로는 자연생명과 통하고 생각으로는 시대의 정신과 사상에 통하고, 정신으로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과 심정에 통하였다.

다석의 사위 최원극에 따르면 다석의 일일일식(一日一食)은 "도통(道通), 이통(理通), 신통(神通)의 단계를 향하는 '정신의 등산'을 위한 것"이다.[31] 다석은 늘 꿇어앉고(一坐), 늘 한 끼 밥을 먹고(一食), 진리의 말씀만을 탐구하고(一言), 한결 같은 사랑으로 살았다.(一仁), 다석은 사통(四通)을 이렇게 풀이하였다. "하늘과 땅은 근원으로 통하고, 무릎 꿇고 앉으면 하늘과 땅이 편안하다."(元通天地一坐天地安) "밤낮으로 형통하고 두루 통하는데, 하루 한 끼 먹으면 밤낮으로 한가하다."(亨達晝夜一食晝夜閑) "살거나 죽거나 이롭고 평화

28) 유영모, "남녀"(버들푸름41), 『多夕日誌, 上』, 867-8쪽.

29)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上), 66쪽.

30) 유영모, "속알", 『多夕日誌, 上』, 863쪽.

31) 최원극, "유영모 스승". 『새벽』1955년 7월호. 81쪽. 『多夕日誌, 上』, 900쪽에서 재인용.

로워, 한 말씀으로 삶과 죽음을 안다."(利和生死一言生死知) "있음과 없음을 곧게 뚫으면, 있음과 없음을 하나로 보게 된다."(貞徹有無一見有無觀)(1955.12.24.)

사통(四通)에 대한 다석의 풀이에서 꿇어앉음(一坐), 밥(一食)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말씀(一言)이 나온다. 말씀과 사랑과 같은 정신적인 주제보다 다석은 꿇어앉음, 밥과 같은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주제를 앞세운다. 다석은 끝에서 사랑(一仁) 대신에 '(곧게 뚫어서) 있음과 없음을 하나로 봄'(一見)을 말한다. '있음과 없음을 하나로 봄'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것'을 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서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3. 맘의 평화: 가온찍기와 중도의 평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폭력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물질적인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생명과 정신, 욕망과 감정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든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폭력은 물질적인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에 근거한다. 부와 권력을 향한 욕망과 경쟁심, 국가와 집단에 대한 충성스러운 애국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의 평화로운 삶은 실현될 수 없다. 욕망과 경쟁, 충성과 애국심이 지배하면 인간의 맘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없다. 일제 식민통치와 남북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국가주의적 욕망과 경쟁, 충성과 애국심이 지배해온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온갖 특권을 휘두르고 부당행위를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주의적 욕망과 경쟁, 충성과 애국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국가주의적 폭력과 결합된 욕망과 애국심을 해체하려면 욕망과 감정을 정화하고 승화하는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르러야 한다. 살아 있는 인간의 몸과 맘에서 욕망과 감정 자체를 제거하거나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국가주의가 조장하는 욕망과 감정은 생명과 정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해치고 파괴하는 지나친 욕망과 감정이다. 국가주의가 조장하고 강요하는 이런 욕망과 감정은 나라의 주인과 주체인 민을 나라의 종(도구)으로 만들고 서로 해치는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피해자로 만든다. 국가주의가 조장하는 욕망과 감정은 민의 자유로운 주체를 억압하고 약화시키며 국가의 전체적 통일을 깨트린다. 국가주의가 조장하는 욕망과 감정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오도하는 잘못된 의식과 관념을 낳고 잘못된 의식과 관념은 온갖 편견과 왜곡된 생각과 주장으로 이어진다. 민의 주체와 국가의 전체를 왜곡하고 해치는 국가주의적 욕망과 감정, 의식과 관념은 민의 삶의 평화를 파괴한다. 욕망과 감정, 의식과 관념의 자리는 맘이다. 인간의 맘속에서 그릇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을 극복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없고 맘의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민의 삶의 평화는 없다. 그릇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이 지배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바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다. 스스로 자유롭게 욕구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고 민의 삶은 평화와 통일에 이를 수 없다.

스스로 자유롭게 욕구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이런 그릇되고 지나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에서 벗어나서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유영모는 '가온 찍기'를 말했다. 가온 찍기는 국가주의 폭력의 토대가 되는 그릇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을 깨트리고 허물어서 참된 생명과 순수한 정신에 이르는 것이다. 가온 찍기에서 가온은 가운데(中)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이다. 맘의 가운데를 찍는 가온 찍기에 대해서 다석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는 '가온'을 · 를 써서 'ㄱ·ㄴ'으로 표기했다. 'ㄱ'은 하늘에 닿은 머리를 나타내고 'ㄴ'은 땅을 디딘 발을 나타낸다. 맘은 하늘의 신령한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다. 맘의 가운데를 찍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를 찍는 것이며 하늘기운과 땅기운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하늘기운과 땅기운이 하나로 통일되면 창조와 변혁의 힘이 나온다. 가온 찍기는 "나의 무한한 가치를 자각하고… 신성하고 영특한 영원의 한복판을…명중시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나의 무한한 가치를 자각하고 신성하고 영특한 영원의 한복판을 명중시키면 주체와 전체가 일치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주체와 전체가 일치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서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다석은 또 가온 찍기를 시간적으로 설명한다. "기역과 아오(ㅣ)라는 한 점과 합치면 'ㄱ'가 되고 아오와 ㄴ을 합치면 'ㄷ'(온)이 되어 가고 가고 영원히 가고 오고 오고 영원히 오는 그 한복판을 탁 찍는 가온 찌기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요, 찰나 속에 영원을 보는 것이다."[32] 가고 오는 시간의 중심을 찍고 시간의 근원인 영원에 이르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가온찍기는 맘의 가운데, 중심을 찍는 것이다. 그가 말한 맘의 가운데 중심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 맘, 얼은 생명진화와 인류역사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 온 것이다. 또한 생명은 물질 안에서 물질을 초월한 것이고 맘은 생명(의 본능과 감각) 속에서 생명을 초월한 것이다. 맘은 물질과 생명 안에서 물질과 생명을 초월한 것이면

32) 유영모, "긋 끝 나 말씀", 『多夕日誌, 上』, 734쪽.

서 물질에서 생명을 거쳐 정신과 얼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맘의 세계는 물질과 생명의 현실세계와 단절된 관념적 사유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물질과 생명의 현실을 초월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시공간적 구체성과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고 역사적 시간의 과정과 주체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와 연대 속에 있는 것이다. 맘의 가운데는 물질적 우주 자연의 가운데이며 욕망과 감정과 의식의 가운데이고 역사적 시간 '때'의 가운데이고 사회적 관계와 연대의 총합인 국가의 가운데이다.

그릇된 욕망과 감정, 왜곡된 의식과 관념이 가득할 때 맘의 가운데는 은폐되고 사라진다. 맘의 가운데(中心)를 잃을 때 자유로운 주체도 사라지고 전체를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진다. 맘의 중심은 자아의 인격적 주체가 서는 자리이며 국가 전체를 보고 느끼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맘의 중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관통하는 때의 중심이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열 수 있는 자리다. 유영모가 맘의 가운데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맘과 관련된 모든 것의 중심을 찍는 것이고 그 중심을 찍음으로써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여는 것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창조적 미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의 참된 주체와 전체에 이르는 것이며 생의 참된 주체와 전체에 이름으로써 민의 주체와 전체가 일치하는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여는 것이다.

가온찍기는 온갖 욕심과 허영, 감정과 편견을 하나의 점으로 모으고 그 하나의 점 가운데를 찍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욕망과 감정, 거짓된 의식과 관념에 사로잡힌 거짓된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다. 거짓된 자아가 깨지면 새로운 참된 자아가 생겨난다. 다석은 18888일째 되는 날에 파사(破私), 다시 말해 '내'가 깨지는 것을 체험하였다.[33] 또 '내'가 깨져 "무사(無私)만 하고 보면, 흑암이나 사망의 두려움이 없음을 알았다."[34] 다석은 파사(破私)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다. "목숨은 썩는 거야 그러나 말씀은 빛나는 거야. …빛 날래면 깨야지, 깨져야지. 죽어야지."[35] '내'가 깨지고 드러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폭발하여 나타나는 나뿐이다." 그러므로 깨어져야 할 '나'를 나타내는 "이름이란 수치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영원자의 아들'이요 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있다. '내'가 깨지고 살아난 '나'는 '나라'(國家)와 같은 것이다.[36] 사사로운 '나'의 생각이나 의지가 깨져서 사적인 의도 없이 볼 때 분열 없는 절대의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평화에 들게 된다.[37]

33) 유영모, "부르신지 38년만에 믿음에 들어감", 김흥호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361쪽.

34) 유영모, "저녁찬송", 『제소리』, 387쪽.

35) 유영모, "깨끗", 『多夕日誌, 上』, 842쪽.

36) 유영모, "긋 끝 나 말씀", 『多夕日誌, 上』, 736쪽.

37) 유영모, "깨끗", 『多夕日誌, 上』, 843쪽.

'나'를 한 점으로 찍으면, 하늘에 명중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은 아무 차별이 없고 걸림이 없는 세상이다. 가온 찍기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하늘을 여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펼치는 것이다. 가온 찍기를 함으로써 이 땅에 서로 하나 되고(大同)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한 점이 되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서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맘의 가운데를 찍음으로써 매임과 걸림이 없는 저 자신에게 이르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하는 주체의 창조적 자유에 이른다. '스스로 함'이 자유와 평등의 기초다. 양반 귀족들은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남에게 시킴으로써 남의 자유와 평등을 짓밟는다. 억눌린 민중은 억지로 '남의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제게로부터' '스스로 하는 삶'은 민주적이고 깨끗한 삶이다. '스스로' 하지 않는 모든 삶은 비민주적이고 더럽고 부패한 삶이다. 다석은 더럽고 부패한, 낡고 비민주적인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서러운 씨올과 더불어 사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 다석의 제자 박영호는 다석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한 삶은 모름지기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늘 아버지만 바라는 삶이었다.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남들의 위에 앉아 섬김을 받고자 아니 하고 남들을 섬기고자 낮은 자리에 서는 씨알(庶民)의 삶으로 한결 같았다. 그러므로 자랑할 학력도 으리한 경력도 있을 리 없었다. 참을 찾는 벗을 사귀고 서러운 씨알과 더불어 살았다."[38] 가온 찍기는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음(有)에서나 없음(無)에서나 자유롭게 사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사는 삶(다석일지 1955.7.11)이면서 자유롭고 주체적이면서 더불어 사는 신나는 삶이다. 마음에 한 점을 찍는다는 것은 마음이 텅 비게 하여, 모든 차별과 장벽에서 벗어나 하늘의 빈탕한데에서 놀게 되는 것이다. 내 속에서 빈탕한데[하늘]를 보고 그 빈탕한데에 맞추어 놀자는 것이다.[39]

또한 가온찍기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중심에 이르러 가운데 길(中道)을 여는 것이다. 유영모는 '우리 아는 예수'라는 시에서 "예수는 믿은 이 높 · 낮, 잘 · 못, 살 · 죽--가온대로--솟아오를 길 있음 믿은 이"[40]라고 노래했다. 형식논리와 이해관계의 평면적 지평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하고 남보다 잘하려 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죽이면서까지 살려고 하면 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과 집단들이 평화세계로 들어가려면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 살고 죽는 비교와 경쟁, 갈등과 대립의 한 가운데로 솟아오를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낳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

38) 『多夕日誌, 上』에 실린 "다석 유영모(多夕 柳永模) 연보"(박영호)의 끝에 나오는 글이다.

39)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노리", 『多夕日誌, 上』, 890쪽 이하.

40) 유영모, "우리 아는 예수", 『多夕日誌, 上』, 921쪽.

쟁과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의 논리를 넘어서 그리고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폭력적 위계질서를 깨트리고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 가운데 길은 막힌 현실의 벽을 뚫고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여는 길이다.

다석은 가운데 길을 가는 기쁨과 신명을 노래로 표현했다. 다석은 '이 세상 중도(中道)를 사는 노래'(노래 누리 곤)에서 하루를 가온 찍기로 살면 늘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자기의 날이고 영원을 사는 날"이라고 했다. 불평불만 없이 기쁘게 사는 삶이 "늘 늘늘늘 늘느리야" 노랫가락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다가 올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새것, 옳은 것을 힘껏 하여...햇것, 올것이 밝아지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41] 늘늘이야 생명의 춤을 추면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다.

유영모가 가온 찍기를 통해서 열어놓은 중도(中道)는 양 극단을 평균적으로 절충하고 타협한 중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와 높이에서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조와 혁신의 중도다. 그것은 국가주의적 폭력이 맞서 있는 대립과 갈등, 적대와 충돌의 꽉 막힌 상황에서 솟아올라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깊고 높고 창조적인 길이다. 그러한 창조적인 중도를 역사와 사회의 현실 속에서 열기 위해서 먼저 몸, 맘, 얼의 실현과 통일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열어야 한다. 가온찍기는 맘속에 하늘을 열어서 물질과 생명과 정신의 실현과 통일이 이루어져 평화로 나아가는 중도의 길을 여는 것이다.

4. 정신의 평화: 종교철학의 회통과 평화

맘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은 생각과 뜻, 사상과 이념으로 움직인다. 맘의 평화를 이루려면 정신의 평화에 이르러야 하고 정신의 평화에 이르려면 민의 주체와 국가의 평화를 실현하는 사상과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주의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국가사회를 이루려면 국가주의 사상과 이념을 비판 극복하고 민주정신과 민주국가의 사상과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주의 폭력(지배)을 지탱하는 마지막 근거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이념의 체계, 국가주의 이념이다. 흔히 국가주의 이념은 그 지역의 인종, 민족, 종교, 문화의 전통과 감정, 사고방식과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그 지역의 종교, 문화, 역사, 민족과 결합됨으로써 국가주의 이념은 더욱 강화된다. 국가주의 폭력을 극복하려면 국가주의이념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주의 이념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지역의 종교, 문화 사상의 역사적 지역적 한계와 문제를 비판하고 극복하여 세계시민적 보편 정신과 사상에 이르러야 한다. 국가주의 이념과 결합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 사상은 한계와 제약을 가지면서도 지역과 전통을 넘어서는 보편적 의미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의 종교 문화적 사상과 정신을 비판하면서도 그 사상과 정신 속에 내포된 보편적 의미와 진리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근현대는 민의 주체적 자각(민주화)이 이루어지고 동서의 정신문화가 합류하는 시대였다. 시대정신에 충실했던 유영모는 철저한 민주정신에 비추어 국가주의 이념을 해체하고 동서의 전통 종교문화 사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동서의 사상과 철학을 회통하고 민주적, 과학적, 세계시민적 사상과 철학을 확립했다. 동서 사상을 회통하는 유영모의 민주 평화사상은 국가주의 이념을 해체한 것이면서 동서의 낡은 정신과 사상을 비판하고 극복한 것이다. 그의 평화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주의 이념을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를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이념이다. 국가주의는 민 사람을 국가의 부분이나 인적 자원으로 여기고 민을 국가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동원하고 소모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 위에 있고 민은 국가에 예속된다. 국가와 국가권력을 신성화, 절대화한다. 또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는 물질적 부와 군사력에 의존한다. 물질적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의존하면서 민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동원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는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물질적 부와 힘을 숭상하는 우상숭배다. 인간이 만든 국가와 국가권력을 신성화, 절대화하는 것은 창조자인 인간이 피조물인 국가와 국가권력에 굴복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모독이다. 국가의 물질적 부와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희생하는 국가주의는 물질에서 생명, 감정과 의식을 거쳐 이성과 얼로 진화 향상해온 생명진화와 인류역사의 근본적인 흐름과 방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민이 곧 나라이며 천자(天子), 최고 통치권자라고 봄으로써 유영모는 국가주의 이념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해체했다. 그는 민을 나라의 어버이라고 함으로써 민을 국가의 자원이나 동원 대상으로 보는 국가주의 이념을 부정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물질적 힘과 부를 위해 인간을 동원하고 부리는 것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민을 곧 나라라고 보고 나라의 어버이와 주권자(최고통수권자)로 보는 민주적 국가에서는 민이 국가의 주인과 주체이며 국가는 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받드는 기관이고 기구다. 민, 사람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다. 민이 국가보다 위에 있다. 민의 창의적 자유와 사귐을 위해 국가는 존재한다. 민의 생명과 자유, 뜻과 사귐, 정신의 고양과 향상을 위해 국가는 존재하고 움직인다. 국가는 민을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기관이다.

41) 김흥호, 『다석일지공부』 6 (서울: 솔출판사, 2001), 57쪽.

국가와 국가권력을 신성화, 절대화하는 국가주의 이념은 비민주적 비과학적인 낡은 인간관과 세계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유영모는 국가주의 이념의 토대가 되는 반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지역주의적인 낡은 사상과 정신을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동양의 주역, 음양오행, 풍수지리, 운수론 등 비과학적, 운명론적 사상들을 비판했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에 대한 물질적 요소들과 힘들의 지배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서 무위자연, 무아, 천인합일처럼 보편적 전체에 개인을 귀속시키는 유불도의 전통사상을 비판하고 넘어서려고 하였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인식하는 개인의 인식론적 주체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윤리적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약용도 개인을 보편적 전체에 예속시키는 성리학(천인합일), 불교(무아사상), 도교(무위자연)를 비판하였다.[42] 유영모는 생각하는 개인의 창조적 주체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와 국가(세계)의 통일적 전체와의 일치를 추구했다. 그는 무극(無極)과 천상(天上)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세계의 음양오행에 매달린 것이 동양사상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을 찾다가 멸망한 것이다...유교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우주의 근원인 무극(無極)을 잊어버리고 천상(天上)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3] 그는 주역은 "내 생명을 내가 산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주역을 결정론이나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했다.[44]

유영모는 신화와 교리에 매인 기독교의 맹목적 신앙을 비판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의 삶과 정신을 이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45] 동양의 신비적 운명론적 사상과 마찬가지로 신화와 교리에 매인 기독교의 반지성적 신앙은 쉽게 국가주의 이념과 결합된다. 그는 서양의 이성철학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삶과 정신의 중심에 놓았다. 그에게 생각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사유가 아니라 생명의 자각이고 삶의 근본행위다. 더 나아가서 생각이 나를 낳는다고 함으로써 생각하는 이성을 최고로 강조하였다.[46] 생명의 자각과 근본행위로서 생각은 역사와 사회의 현실에서 단절된 사변(思辨)이 아니라 민의 자아를 혁신하고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변혁하고 창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할 수 있었다. 민은 스스로 생각해야 살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개인의 주체를 약화시키는 동양의 운명론적 사상과 보편주의적 사상을 넘어서고 서양의 신화적 교리적 기독교 신앙과 사변적 이성철학을 비판한 유영모는 동서의 정신과 사상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동서의 정신문화를 회통하고 융합하는 민주적이고 세계시민적인 철학을 형성하였다. 전통적인 종교문화와 사상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유영모는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세계인류가 국가와 민족과 종교문화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간의 정신을 움직이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다. 사상과 이념이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고 세계 보편적으로 바르게 확립될 때 국가주의 폭력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국가주의 이념과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철학적 윤리적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주의적 폭력을 극복하고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철학적 윤리적 기초는 사변적 지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삶과 역사의 깊이에서 체험적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닦여져 나와야 한다. 다석은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민주정신, 과학정신, 세계보편정신을 체화함으로써 그리고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동서의 서로 다른 종교사상과 철학의 회통에 이르렀다.

한국현대사에서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합류하였다. 한반도는 동서문화가 합류하는 두물머리였다. 유영모는 동서문화의 합류와 민주화 과정으로 전개된 한국근현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에 충실하게 살았다. 유영모의 삶과 정신 속에 시대정신과 역사가 온전히 스며들 수 있었다. 유영모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해 충실하게 사유했던 독보적인 사상가다. 동서정신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추구한 철학자이고 깊은 영성을 지닌 풀뿌리 민주철학자다. 그는 평생 "동양 문명의 뼈에 서양 문명의 골수를 넣으려" 했고, 동양정신문화와 서양정신문화가 서로 대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융합을 추구했다.[47] 유영모의 삶과 정신 속에서 동양의 유불선과 서양의 기독교정신, 이성 철학, 민주정신이 합류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와 서양철학의 로고스(이성, 생각), 기독교의 말씀(사랑), 동아시아의 길(道), 한민족의 한(韓; 크고 하나임)을 통합하여 대종합의 사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동서문화의 만남과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이룩된 이러한 대종합의 사상은 전쟁과 폭력을 조장하는 국가주의 이념과 사상을 극복하고 민주국가의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2)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송영배 외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73~4, 103, 192, 200쪽이하, 221, 348쪽. 윤사순,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열음사, 1986), 138쪽. 김영일, 『丁若鏞의 上帝思想』 (서울: 경인문화사, 2003), 83, 87, 96~7쪽. 丁若鏞 『與猶堂全書』景仁文化史』 (서울: 影印刊, 1982). II, 36/24a.

43) 박영호 풀이, 『다석 유영모 명상록』 (서울: 두레, 2001), 330쪽.

44) 『다석강의』, 425쪽.

45) 『다석강의』, 178, 183, 902~903쪽.

46)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81~2, 84쪽.

47)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310쪽.

5. 하늘의 평화: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상생평화의 통일세계

순수 이성은 생명과 정신의 주체와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다. 순수한 이성은 땅의 물질세계를 평면적으로 초월한다. 평면적으로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은 물질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물질세계의 주체와 전체, 깊이와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완성할 수 없다. 더욱이 생명과 정신의 주체와 전체를 순수이성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현하거나 완성할 수 없다. 이성은 비과학적 숙명론적 낡은 의식을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욕망과 감정을 승화하고 고양시켜서 민의 주체와 국가의 전체를 일치시키는 정의와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수 없다. 과학적 이성은 국가주의 이념을 해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자아를 혁신하고 고양시켜서 정의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민주국가를 형성하도록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적 이성을 넘어서서 주체와 전체를 함께 실현하고 완성하는 영성적 사유가 요청된다. 영성적 사유는 땅의 물질적 차원을 초월하는 하늘의 깊고 높고 큰 세계를 드러내는 사유다.

그리스로마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그리스로마인들은 하늘을 거세하고 전복한 후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가를 세웠다. 그리스로마의 건국신화가 시사해주듯이 그리스의 철학은 하늘의 영성과 영감이 제거된 에로스와 로고스의 철학이다.[48] 에로스는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과 충동이며 로고스는 논리 · 계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결핍된 것에 대한 욕망과 사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인 철학은 잘못된 욕망과 지나친 감정을 승화 고양시켜 평화와 통일에 이를 수 없다. 로고스는 에로스의 충동에 휘둘리는 종이거나 에로스를 통제하는 압제자다.

그리스로마의 건국신화와는 달리 한국의 건국신화는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높은 뜻과 이치를 실현하는 국가를 세웠다고 말한다. 한민족은 높은 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제사하는 종교문화전통을 오랜 세월 지켜왔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염원한 겨레다. 유영모는 사람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곧게 섬으로써 사람이 되었다고 보았다. 하늘에 머리를 둔 사람은 하늘을 그리워하고 탐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49]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나아간다.'는 말이 유영모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50] '하늘'은 만물과 생명과 정신의 통일을 나타낸다. 인간의 생명과 정신 속에서 몸, 맘, 얼의 통일적 초점을 가진 것이 인격, 주체, '나'이고 인간의 생명과 정신 밖에서 사회와 역사가 서로 이어지고 소통하여 크게 하나로 통합된 것이 전체(국가, 세계)다. 인간의 안과 밖에 '하나'(하늘)가 있다.

다석은 평생 하나를 추구하고 하나에 이르고 하나가 되려고 하였다. 유영모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철학의 원리는 '하나로 돌아감'(歸一)이다. 하늘은 큰 하나, 하나이신 임,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늘은 한없이 깊고 크지만 쪼갤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전체 하나다. 하늘은 개인의 주체와 세상 전체가 하나로 되는 자리다. 하늘은 주체의 깊이와 자유에서 전체의 하나 됨에 이를 수 있는 곳이다. 하늘,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주체로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이른다. 저마다 하늘의 하나로 돌아가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서로 자유로우면서 큰 하나 전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주체와 전체가 일치되는 하늘을 '큰 나, 참 나, 한 나'라고 하였다. 하늘, 한(하나님)을 유영모는 평생 구도자적으로 추구하였다. 그의 일상생활은 '하나, 하늘'에 이르고 하늘을 모시고 하늘 속에서 자유롭게 살려는 구도자적 삶이었다. 그는 앉거나 서거나 밥을 먹거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나에 이르고 하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는 하늘, 참된 하나를 자신의 속의 속에서 찾고 발견하였다. 속의 속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하늘로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51] 자아의 속의 속에서 하늘(하나)로 초월함으로써 참나(주체)가 되고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는 전체에 이를 수 있다.

1) 통일보다 귀일이 먼저다

1955년 6월 2일 일지에 다석은 '통일'이란 한시를 썼다.

> 統一爲言人間譌(통일위언인간와) 歸一成言天道誠(귀일성언천도성)
> 太初一命宗教義(태초일명종교의) 咸有一德信仰城(함유일덕신앙성)

이것을 풀어 보면 이렇다: "통일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면 인간은 더욱 어긋나고, 하나로 돌아가 말씀을 이루면 하늘 길을 정성으로 가게 된다. 태초의 한 목숨이 종교의 깊은 뜻이고 함께 한 가지 덕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의 틀이다."

다석은 통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사람이 통일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사람은 오직

48) 에로스와 로고스의 철학에 대해서는 남경희,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 (서울: 아카넷, 2006) 178~9, 183~4쪽 참조.

49) 유영모, 「꽃피」, 「多夕日誌, 上」, 825~828쪽.

50) 유영모, "매임과 모음이 아니!", 『다석일지(영인본) 상』, 744쪽. 유영모, "소식2", 김흥호편 .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솔출판사, 2001), 347, 349~350쪽.

51) 유영모, "하나", 『多夕日誌, 上』, 759~760쪽.

하나님께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일은 귀일(歸一)이다. "나는 통일은 싫어한다. 통일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일(歸一)이라야 한다."[52]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편견과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과 관점에 매여서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일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지배를 전제한다. 다석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통일을 싫어한 것은 타자의 '스스로 함'과 다름을 존중했기 때문이다.[53]

서로 다른 주체들이 저마다 하나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통일에 이를 수 있다. 귀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은 지배와 정복의 통일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실현되고 완성되며 상생과 공존에 이르는 평화롭고 풍성한 통일이다. 하늘에 이르러 빈탕한데의 자유를 가지면 몸은 몸대로 되고 맘은 맘대로 자유로워 몸과 맘이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되며 몸 · 맘 · 얼의 평화로운 통일에 이른다.[54]

2)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상생평화의 통일세계

유영모 사상의 중심에서 전체를 꿰뚫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이다. '하나'를 찾고 '하나'로 돌아가자는 것이 다석 사상의 시작과 끝이다.[55]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 속에서 물건과 인간의 생명이 완성되고, 자유와 공평의 대동세계가 열리고, 상생평화의 통일세계가 시작된다. 유영모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과 사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 곧게 서서 하늘로 솟아오름으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하나 됨에 이르는 것이다. 상대세계의 물질에 집착하고 향락하면서 뱀처럼 땅 위를 기면, 혼란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 위로 솟아오를 때 열리는 하늘나라는 "...곧디[貞]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다. 그것은 하나로 통일된 한데나라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향해 곧게 올라갈 때 남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남과 하나 될 수 있다.[56] 서로의 슬픈 심정과 아픈 처지를 하나로 경험할 때 자유와 공평의 대동세상이 열린다.

상대적 유무의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면 천국이다. 다석은 하나님의 품을 '그늘'이라고 하며, 그늘[안식]과 그느름[거느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 "그 품속에 앉아 주는 것이 그느름이요 이것이 통치(統治)다...그늘에는 금이 없다. 갈라짐...싸움이 없다. 제그늘은 자기가 통치하는 자유의 왕국이다." '하나'(하나님)의 그늘은 쉬는 것이면서 다스리는 것이고 저마다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품인 그늘을 또 이렇게 말 한다: "절대세계에는 분열이 없고 문제가 없고 조건이 없다. 거기는 영원한 평화만이 깃들이는 그늘이요 완전과 성숙이 영그는 영원한 그늘이다."[57] 제가 저를 다스려서 스스로 서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성숙한 사람은 제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다스려서 승화하고 고양시키며 스스로 충족시키고 실현시킨다.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처리하는 사람은 자립과 독립을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신과 남의 주체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화와 파멸에 이른다.

전쟁과 폭력이 주도한 민족국가주의를 청산하고 세계평화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동서 문명의 통합과 세계평화의 이념에 대한 철학이 요구된다. 사회주의사회의 실패를 딛고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맘과 얼이 통합되고 속이 뚫려서 자발적 주체성과 공공적 헌신성을 지닌 새 인간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탐욕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늘의 빈탕한데에서 돈과 힘과 기술을 이치와 필요에 따라 바르게 씀으로써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자유인이 나와야 한다.

Ⅲ.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

고대사회에서 국가가 생겨난 이래 수 천 년 동안 국가는 안으로 민에 대한 폭력적인 통치를 통해 민을 억압하고 지배해왔으며 밖으로 다른 국가들과 전쟁하면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가는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들과 집단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막스 베버(Max Beber)가 말했듯이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기관이다.

현대의 민주국가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침략과 부당한 개입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버가 말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기관으로서의 국가이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민주화, 과학화, 지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대세계에서 국가의 본질과 목적은 세계정의와 평

52)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下), 393쪽.

53) 『다석일지공부』1, 60쪽.

54) 유영모, "하게 되게", 『多夕日誌, 上』, 809~810쪽.

55)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서울: 두레, 2002), 40쪽.

56) 유영모, "속알", 『多夕日誌, 上』, 863쪽.

57) 유영모, "깨끗", 『多夕日誌, 上』, 843~4쪽.

화를 지향하는 미래의 전망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해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두 가지 관점에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기관으로서의 국가이해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과 주권자로서 진정한 통치권자다. 국가의 통치권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통치는 국민주권을 앞세운 민주적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모순된다. 국민에 대한 민주국가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국민 자치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대의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통치여야 한다.

둘째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소통하는 지구화 시대에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전쟁과 폭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가이해는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주권과 군사력이 다른 국가들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해는 점차 시대착오적인 낡은 국가이해가 되고 있다. 민주화와 세계화가 실현되는 21세기에 세계 정의와 평화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제 민주국가의 주권과 군대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의 주권과 군대는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는 권한과 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전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국가의 전쟁과 폭력은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주권과 군대의 목적과 사명은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기관이며, 세계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보호하는 단체다. 이런 국가이해를 전제할 때 민, 삶, 맘, 정신, 하늘의 평화를 추구한 유영모의 평화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유영모의 평화사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어떤 교훈과 지침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유영모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저마다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귀일(歸一)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시사해 준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남한사회가 하나로 되어 평화롭고 통일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남한사회가 분열과 갈등, 대립과 적대로 가득 차 있으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수 없다. 서로 다른 주체들과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는 획일적으로 동일한 전체 사회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유영모가 말한 '하나로 돌아감'은 서로 다른 집단들과 주체들의 서로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에 이르는 것이다. 욕망과 감정, 주장과 관점, 생각과 이념의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됨에 이르는 것이 유영모가 말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남한사회가 하나로 돌아가서 서로 다름 속에서 서로 다름을 넘어서 하나에 이를 때 남한과 북한 사이의 막힌 벽을 뚫고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 유영모가 말한 '하나'는 하늘로 상징되고 표현되는 깊고 높고 큰 하나다. '하나'(하늘)로 돌아가면 나를 잃거나 버리지 않으면서도 남(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남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에 이르면 남의 입장과 처지에서 남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의 현실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풀고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민의 삶의 평화를 말한 유영모의 평화사상은 민이 주도하는 삶 중심의 평화통일 방안을 시사한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북한정부와 남한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평화 통일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남북한의 민과 민의 삶 중심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남한정부는 북한정부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민과 그 민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고 북한의 민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평화 통일의 주체와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민이다. 북한과 남한의 민이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완성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유영모는 모든 것을 주체와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물체도 물질의 주체라고 했다. 일과 물건, 기관과 기계, 제도와 체제도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북한 지배체제와 권력자도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파행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북한체제와 권력은 그 나름의 역사와 사연을 가진 것이고 현실적인 힘과 정당성을 가진 것이다.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결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 세계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을 평가하고 중시하면서도 특수한 북한체제와 권력을 중시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존중하고 진실과 성의로써 돈독하게 대해서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정은과 김여정이 중국으로 망명하지 않고 남한으로 망명할 만큼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연대가 형성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유영모는 한국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민족정신과 문화의 주체성을 가지고 서양의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여 민주적인 평화사상을 확립했다. 남과 북이 한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어온 정신과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을 확인하고 한민족의 삶과 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대화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한민족의 역사적 주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보편적인 정의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한민족뿐 아니라 세계 인류를 위해서 창조적이고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온갖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민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세계 인류가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길에 귀감이 되게 해야 한다. 낡은 봉건질서와 체제, 식민통치, 남북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근현대사는 세계사의 온갖 문제와 과제를 압축해서 경험하고 극복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세계사의 온갖 문제와 고난을 압축해서 경험하고 극복해온 한국사회가 남과 북의 국가주의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 적대와 불신을 극복하고 민중의 힘으로 정의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가는 것은 민주, 정의,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다섯째 유영모는 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주의 폭력과 지배를 해체하고 민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맘, 정신, 하늘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통일을 구도자적으로 탐구하고 실존적으로 체험하였다. 그가 실존적 체험적으로 확립한 평화 통일의 사상은 모든 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유영모와 함께 그가 개척한 생명 철학적 민주적 평화사상을 공부하고 체득하고 실천한다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

- 김민수 · 홍웅선 편. 『다목적 종합 국어사전』. 서울: 어문각, 1977.
- 김영일. 『丁若鏞의 上帝思想』.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김흥호 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김흥호. 『다석일지공부』 6. 서울: 솔출판사, 2001.
- 남경희.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 서울: 아카넷, 2006.
-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上). 서울: 두레, 2001.
-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 (下). 서울: 두레, 2001.
- 박영호 엮음. 『多夕 柳永模 어록』. 서울: 두레, 2002.
- 박영호 엮음.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 씨알의 메아리』. 서울: 홍익재, 1993.
- 박영호 풀이. 『다석 유영모 명상록』. 서울: 두레, 2001.
- 박재순. 『다석 유영모–동서사상을 아우른 생명철학』. 서울: 홍성사, 2017.
- 박재순. 『다석 유영모의 철학과 사상』. 서울: 한울, 2013.
- 유영모. 『多夕日誌, 上 · 中 · 下』, [영인본] 김흥호편 1982.
- 유영모.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 유영모. “긋 끝 나 말씀”, 柳永模. 『多夕日誌, 上』, [영인본] 김흥호편 1982.
- 유영모. “깨끗”, 『多夕日誌, 上』
- 유영모. “꽃피”, 『多夕日誌, 上』 유영모, “남녀”(버들푸름41), 『多夕日誌, 上』
- 유영모. “매임과 모음이 아니!”, 『多夕日誌, 上』
- 유영모. “부르신지 38년만에 믿음에 들어감”, 김흥호편.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유영모. “빈탕한데 맞혀노리”, 『多夕日誌, 上』
- 유영모. “소식2”, 김흥호편 . 『제소리: 다석 유영모 강의록』, (서울: 솔출판사, 2001).
- 유영모. “속알”, 『多夕日誌, 上』
- 유영모. “우리 아는 예수”, 『多夕日誌, 上』
- 유영모. “저녁찬송”, 『제소리』
- 유영모. “제자 함석헌을 말한다.”,『올다이제스트』 1964년 12월호.
- 유영모. “정(2)”, 『多夕日誌, 上』
- 유영모. “짐짐” 『多夕日誌, 上』
- 유영모. “하게 되게”, 『多夕日誌, 上』

- 유영모. “하나”, 『多夕日誌, 上』
- 윤사순.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열음사, 1986.
- 丁若鏞. 『與猶堂全書 景仁文化史』. 서울: 影印刊, 1982.
- 최원극. “유영모 스승”. 『새벽』. 1955년 7월호.
- 함석헌. “세계구원과 양심의 자유”. 『함석헌전집9권』. 서울: 한길사, 1983.
- 마테오 리치. 송영배 외 옮김. 『천주실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에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12.
-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9.

| 영문자료 |

-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ti(la Haye: Maritinus Nijhoff, 1961)
-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ed.) Mattew Evangelista, Peace Studies.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1. New York. 2005.
-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1966.

옹기 김수환의 평화사상

박일영(가톨릭대)

I. 김수환의 생애와 시대상

| 약력 |

1922년 5월 8일(음)	대구 출생. 경북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로 이주.
1933년 4월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 입학
1936년 4월	서울 동성상업학교(현재. 동성중고등학교) 을조 진학
1941년 3월	서울 동성상업학교(현재. 동성중고등학교) 을조 졸업
1941년 4월	일본 동경 상지대학교 입학
1942년 9월	일본 동경 상지대학교 문학부 철학과 진학
1944년 1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학업 중단 후 학도병 징집
1947년 9월~1951년 6월.	서울 성신대학(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 전공
1951년 9월 15일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
1951년 9월	경북 안동시 목성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1953년 4월	천주교 대구교구장 주교 비서
1955년 6월~1956년 7월.	김천 황금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성의중고등학교장 겸임
1956년 10월~1963년 11월.	독일 뮌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사회론 전공
1964년 6월~1966년 5월.	주간 가톨릭시보 (현재. 가톨릭 신문) 사장

1966년 5월 31일	주교 서품, 천주교 마산교구장 착좌
1968년 5월 29일	대주교 승품,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착좌
1969년 4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추기경 서임
1970년~1973년	아시아 천주교 주교회의 연합(FABC) 준비위원장
1970년 10월~1975년 2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1차)
1971, '74, '83, '85, '87년	교황청 시노두스(세계주교대의원회의) 한국 대표
1975년~1998년	평양교구장 서리 겸임
1981년 5월~1987년 11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2차)
1984년 5월 6일	파리외방전교회 명예회원으로 위촉
1997년 11월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1998년 4월 19일~5월 14일.	교황청 아시아주교대의원회의 공동의장
1998년 6월 2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및 평양교구장 서리 퇴임
1999년 4월 29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재단 이사장
2001년 5월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 상임대표
2003년 1월	생명21운동 홍보대사
2009년 2월 16일	선종.

| 명예박사학위 |

1974년 2월 23일	서강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1977년 5월 22일	미국 노틀담(Notre Dame) 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1988년 11월	일본 쇼오치(上智 Sophia)대학교 명예 신학박사
1990년 5월	고려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1990년 10월	미국 시튼홀(Seaton Hall) 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1994년 5월 14일	연세대학교 명예 신학박사
1995년 6월 14일	타이완 푸런(輔仁 Fu Jen) 가톨릭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1997년 7월 30일	필리핀 아테네오(Ateneo) 대학교 명예 인문학박사
1999년 10월 29일	서울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 상훈 |

197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0년 5월 23일	제13회 심산상(心山賞) (성균관대학교)
2000년 11월 28일	제2회 인제인성대상 (인제대학교)
2001년 1월 29일	독일 대십자공로훈장

1981년도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옹기 김수환(1922-2009)의 자전적 글은 그의 인간적인 풍모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중간 중간 생략해가면서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그날따라 대구 계산동 대성당의 종소리는 유난히 성스럽게 울려 퍼졌다. 많은 신도들과 선배 신부들의 따스한 눈길을 받으며 나는 로만 컬러 위에 수단[1], 다시 그 위에 희고 긴 장백의(長白衣)[2] 차림으로, 왼손에 제의를 걸친 채 발소리를 죽여 사제서품식을 집전하는 최덕홍[3] 주교님 앞으로 걸어 나갔다. 십자가도 그날따라 유난히 뚜렷하게 시야에 들어왔고 최 주교님의 목소리도 그날따라 유난히 엄숙했다. 어머니, 그해 69세이셨던 어머니는 '자식이 신부가 되는 게 소원'이었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맨 앞자리 마룻바닥에 꿇어앉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나는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받친 자세로 마루에 엎드렸다. 성가대와 선배 신부들이 불러 주는 성인열품도문(聖人列品禱文)의 성스러운 메아리가 성당을 맴돌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을 비워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로 하여금 신부가 되는 것을 망설이게 했던 그 많은 신념들, 내게 1년쯤 고민을 안겨 줬던 추억 속의 여인, '네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느냐'고 나 자신을 긁어 대던 자격지심 등… 이런 것들의 환영(幻影)을 지워냈다. [중략]

충남 연산(連山)이 고향이던 할아버지 보현(甫鉉)씨는 독실한 신자로 병인년 교난(1866~1868)때 잡혀 충남 덕산(德山) 근처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교하셨고, 아버지 영석

1) 신부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로만 칼라가 있고 앞에 단추가 30-40개 달린 발목까지 닿는 검은색의 긴 옷.

2) 사제가 미사 집전할 때 개두포(사제가 미사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 천. 蓋頭布)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긴 옷.

3) 崔德弘 세례자 요한(1902~1954). 제5대 천주교 대구교구장(1948.12~1954.12).

(永錫)씨는 그 유복자였다. 그렇게 태어난 아버지도 천주교를 뿌리치지 못한 채 당시 박해를 받던 많은 신도들이 그러했듯이 옹기장수로 변신해 전전하다가, 대구의 처녀 서중하(어머니)와 결혼한 뒤 옹기 터를 경북[4]으로 옮겨 생계를 꾸렸으나 장사가 잘 안 돼 이곳저곳으로 전전은 했어도 한순간도 천주교를 떠난 적은 없었다고 한다.

5남 3녀의 막내로 내가 태어난 곳은 대구시 남산동. [중략] 내가 일곱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별세하셨으나 가톨릭을 향한 어머니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 갔던 것 같다. 주일에는 물론 평시에도 가톨릭 교리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신앙심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이던가 4학년 때이던가, 어머니는 처음으로 손위 형님(동한)과 내게 '신부가 되라'는 말씀을 꺼냈다. [중략]

내가 사춘기를 넘긴 것은 서울 동성상업학교로 동성상업학교는 갑조(상업학교 코스)와 을조(신부 코스 · 전원 장학생)로 나누어 학생을 뽑았는데 형님과 나는 을조였다. 도서관에서 일본문학전집을 닥치는 대로 읽어 대면서 막연하나마 이성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내가 느끼기로는 이 같은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스토리가 비슷한 몇 개의 틀로 요약되는 것들이었다. 요컨대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다가 삼각관계로 발전했다가 누군가 자살을 하고…. 아무튼 쉽게 싫증을 느꼈다.

그래서 접하기 시작한 게 ≪가톨릭 성인전≫이었다. 돈 보스코 성인의 이야기와 소화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 등이 이때 읽은 것들로, 특히 소화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는 내게 소설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무한한 뜨거움을 안겨 주었다. '하느님은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 기쁨과 고통 등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옵니다.'라는 대목은 내가 지금도 좋아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목이 좋고 동성상업학교 을조가 신부 코스라고 해서 내가 사실 당시부터 신부가 되리라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우선 여성에 대한 동경이 없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한 예비신부로서는 고사하고 한 인간으로서도 부족함을 통감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과연 나는 신부가 될 자질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항상 '아니다'였다.

고민 끝에 어느 날 프랑스인인 공벨 신부를 찾아가 심경을 털어놓으면서 '신부가 되기 싫다'는 내 의사를 밝혔다. 공벨 신부는 한참 동안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신부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되는 게 아니다'고. 나는 두말 못하고 물러났으나 신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면적인 갈등은 그 뒤 일본

4)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김수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의 옛집 터와 인근 초등학교 부지 등에는 2018년 3월 27일에 청소년수련관과 기념관 등을 포함하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사랑과 나눔 공원'이 개장되었다. 『가톨릭신문』, 2018년 4월 8일 참조.

유학(상지 대학)시절에도 줄기차게 계속됐다. 더구나 당시는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때라 신부 쪽보다는 이 나라 독립을 위한 투쟁에의 길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잡아끌고 있던 때였다. [중략]

아무튼 신부수업을 했으면서도, 그리고 신부가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었으면서도 나는 '신부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만나 뵌 대구 남산동 성당 장병화 신부님(1912~1990)[5]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내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 주신 분이다. '신부로서는 부적당하다'는 나의 고민을 듣고 난 장 신부님은 '바로 그 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신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꼭 신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략]

다음으로 여성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나는 두 번 여성과 인연이 있을 뻔했다. 한 번은 일본 유학시절 친구가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한 일이 있고, 또 한 번은 해방 후 우연히 교회에서 만난 세 살 연하의 여인이었다. 첫 번째 여인은 별 진통 없이 사양했으나 두 번째의 여인은 내가 거의 1년 동안 고민을 했다.

니체를 좋아한다는 이 여인은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으로 정신적으로 내게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접근해 왔다. 신부가 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때라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도 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하는 기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한 여성을 완전한 의미로 사랑해 줄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부가 됐다.

올해(1981)로써 신부가 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30년의 연륜만큼 거룩하게 됐는가? 신부가 되기 전에 그랬듯이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거룩하게 되었기보다는 오히려 때 묻은 30년이고,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6]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김수환은 이 땅에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부터 천주교 신앙을 지켜온 유서 깊은 신앙가문의 후손이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물려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생전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특히 어머니의 감화가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1912년 대구 출생, 1932~1938년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수학, 1938년 사제서품, 1954~1956년 벨기에 루벵 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 1968년부터 제2대 천주교 마산교구장 주교 역임.

6) "지금도 주님께 무릎 꿇어 용서를 빈다", 『중앙일보』, 1981년 9월 22일, 『김수환 추기경 전집 17-7』에서 재인용.

그런 까닭에 만 11세의 어린 나이에 신학교 문을 처음 두드렸고, 18년에 걸친 장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김수환이 대구에서 천주교 신부로 사제서품을 받은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던 1951년이었다. 안동천주교회 주임사제, 천주교 대구교구장 비서 등을 지낸 후, 1956년부터 1963년까지 독일 뮌스터 대학교로 유학하여 '그리스도교 사회론'[7]을 전공하였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한 후에는 가톨릭신문 사장을 지내다가 1966년에 마산교구장 주교로 서임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68년에 대주교로 승품되면서 서울대교구장으로 전보되었고, 이듬해인 1969년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당시 130여 명의 전 세계 추기경들 중에서 최연소 추기경이라는 기록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독일 유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요셉 회프너(Josef Höffner) 쾰른(Köln) 대교구장과 한날한시에 추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특히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크게 주목 받기도 하였다.

김수환은 1960년대 말 서울대교구장이 되고, 추기경으로 서임되면서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때 김수환의 제1성이 바로 "교회의 벽을 허물자!"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의 기치 아래 다른 모든 가치들은 희생되거나, 유보된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농민, 공장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다.

김수환은 한국 가톨릭교회 230여 년의 역사상 최초의 추기경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 내부의 입장으로서는 교황 다음의 최고위직에 오른 첫 번째 한국인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교회와 사회에 가로놓였던 높은 벽을 허물고 한국사회 전체의 인권회복과 정의구현,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 온 대표적인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사회 문제에 한하여 말하자면, 1987년 이전에는 주로 인권회복과 정의구현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고,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7년 이후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하여 '한마음 한몸 운동' 등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선종 당시 안구 기증으로 두 사람에게 시력을 찾게 해

7) 독일어로는 Christliche Sozial-Lehre, 영어로는 Christian Social Teaching. 최근 한국에서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스도교 내지 가톨릭의 신앙내용을 어떻게 시대상황에 맞게 실천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준 일화도 유명하다.[8] 또한 남한 사람들이 동서로 갈라져 다투는 모습에 대하여도 염려를 금치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의 화합을 위하여 힘쓰고,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에게 고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김수환은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원칙과 진실된 사회를 갈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수환의 기본 입장은 언제나 한결 같고 분명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승리자가 되거나 영광을 탐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된 하느님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한 자세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라는 자세이다.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통하여 보라는 말이다.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 자신부터 실천하고,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는 것이 김수환이 평생 간직하였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제일 웃어른으로서, 한국 사회의 큰 스승으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질그릇, 옹기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쪽으로 쏠리고 편향되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하여 모든 것'(Omnibus omnia)이 되고자 한 것이 그의 일관된 자세이었다.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수환은 독일 유학 시절에 '그리스도교 사회론'을 전공하였다. 그리스도교 사회론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간 다음에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아름답고 바른 세상을, 성경의 말씀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신념을 배경으로 김수환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김수환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물러나 은퇴한 후에는, 사제성소를 최종적으로 다듬었던 모교이기도 한, 서울 혜화동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구내에 위치한 공간에서 되도록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였다. 그렇지만 소외받고 외로운 고아나, 노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남모르게 찾아다니면서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후배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그 이름을 자신의 아호를 따라 '옹기장학회'로 짓기도 하였다. 물론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는 깊은 명상과 오랜 수련의 결과로 얻은 밝은 지혜를 바탕으로, 나라를 위한 귀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9]

8) "봉사의 삶을 일깨워주신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주천기 교수 인터뷰",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3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5), pp. 91~207 참조.

9) "그리스도 사랑의 사회화.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동채 대표 인터뷰",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4권 (부

옹기 김수환이 평생 강조했고, 우리에게 남긴 것은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라는 좌우명대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따라서 모두에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인간다운 삶, 노동자의 권익, 정의구현, 민족의 화해와 일치, 세계평화… 이 모든 것이 김수환에게는 결국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의 실천'[10] 이 한 마디로 모인다고 볼 수 있겠다.

Ⅱ. 김수환의 평화사상과 그 특징

현대는 다문화와 다종교의 시대이다. 소위 '종교백화점 혹은 종교의 슈퍼마켓'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제각기 마음에 드는 품목(items)을 선택해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한 편으로 자유 의식이 그 어느 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고취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 조작에 따른 우민화를 염려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종교를 빙자한 테러가 난무하는 세계적 모순이 증대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대인이다.[11]

우리가 처한 세계는 동서 냉전으로 대표되는 상극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중심(multi-centrism), 다문화, 다종교를 내세우는 상호협력과 호혜적 대화를 갈망하는 상생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다. 인종적, 지역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종교인구의 비율 분포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발적인 종교인구의 증가 등은 현대 종교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만든다.[12]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가 지니는 또는 지녀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참된 평화'[13]의 실현이라는 역할을 탐구하고자 하는 요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자신에 대한 배타적 보호 방책이나 제한적 울타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세상과 인간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알아듣는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교학과 신학의 새로운 조류, 즉 '응용종교학' 내지는 '종교신학'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4]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하느님의 평화, 즉 샬롬(shalom)이라고 지칭 되는 완전한 형태의 적극적인 평화를 그 이상으로 이야기 해 오고 있다.[15] 이하에서는 현대 사회 안에서 평화실현의 비전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16] 즉,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간 구체적 인물인 김수환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평화의 개념과 '평화 감행'(平和敢行. Frieden Wagen)[17]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수환이 제시했던 평화의 의미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평화감행]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단초를 그 윤곽이나마 제시하리라 기대하게 된다.

1. 김수환의 평화 개념

주지하다시피, 김수환은 종교나 사회사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을 담은 전문적 학술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준 언행을 통해 그의 사상과 실천덕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18]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김수환의 '사회

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6), pp. 413~436 참조.

10)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 참조.

11) 김경재, "위기극복의 과제와 종교의 역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년 12월 4일), pp. 7~11 참조.

12) William A. McGeveran,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New York: World Almanac Book, 2005; http://www.globalreligiousfutures.org/ 참조.

13) 현대 평화 이론에 관한 내용은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 1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pp. 15~47 참조.

14) 유정원, "한스 큉의 평화신학", 이찬수/유정원, 『신학총서 32 종교신학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96), 195–204쪽; Wilfred Cantwell Smith,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pp. 21~44; Leonard Swidler, 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pp. 1~50 참조.

15) Richard Friedli,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pp. 27~29: "샬롬" 개념 참조.

16) 오지섭, "평화", 강영옥 외, 『김수환 추기경 시민 아카데미 매뉴얼 및 교재 개발연구』 (서울: 감사랑, 2015), pp. 119~137 참조.

17) Cfr. Richard Friedli,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18)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추기경전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참조. 『김수환추기경전집』은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 출간을 기획한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소장 신치구]는 196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기, 메모, 강론, 강연, 기고, 인터뷰, 축사 등 각종 원고 총 3,481편 가운데 2,078편을 선정하여 출판하고, 2001년 6월 27일 김추기경의 팔순을 기념하여 봉정했다. 이하 『전집』으로 표기. 그 이후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서는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수집된 김수환 추기경의 모든 원고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김수환추기경전집』을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총 33권의 한정판으로 간행하여 관련 기관에 비치하였다. 이하 『말씀집』으로 표기.

영성'(social spirituality)이 지니는 특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수환은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이론가라기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는 모범을 보여준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생전에 보여준 모든 관심과 행동은 현실 삶의 절박한 상황 안에서 벌어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심고원려의 내용을 자신부터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김 수환이 보여주었던 용기 있고 진솔한 모습에서 이러한 사회영성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다.

'평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김수환의 실천적 사회영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평화 이해는 막연한 이론 탐색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반(反)평화의 현실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진 실제 삶의 모색이요,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평화실현이란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 실천적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9] 평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이라는 사회적 불공정과 억압이 없는 상태까지를 포함한다. 비폭력적 분쟁 해결을 선호하고, 정치-경제적 정의와 사회-환경적 균형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참다운 평화는 가치를 앞세우며,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다.[20]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원칙은 이데올로기, 군사, 경제 등의 문제를 떠나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화해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통일은 북한의 영토와 남한의 영토를 어떻게 합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갈라져 사는 동포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문제, 즉 평화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경제의 논리처럼 주는 것이 있어야 내놓을 수 있다는 식의 이윤 논리나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 그리고 확전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군사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 중심을 둔 평화의 논의가 전개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21]

하느님이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는 인간이 하느님 창조의 뜻대로 존엄성을 간직하며 참

19)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참조.

20) 위의 글 참조.

21)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 4. 20)" (『말씀집. 1999년』), p. 59.

된 삶, 행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곧 참된 평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수환의 평화 개념은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에 해당한다. 김수환은 이러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참된 평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진리에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풂으로써 이룩되는 평화입니다… 진리, 정의, 사랑이야말로 평화의 참 무기입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미소 하나로써 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사랑에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그 메마른 마음을 적셔 줄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이 많습니다. 옷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과 이해로써 감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처럼 고독하고, 중병을 앓는 사람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 될 것입니다(마태 25, 40). 우리 하나 하나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참 평화는 증진될 것입니다.[22]

김수환의 평화 이해를 앞서 살펴본 현대 평화 이론에 견주어보면 '적극적 평화' 개념 내지는 완전한 평화에 해당한다.[23] 김수환 스스로도 교회의 공식문헌을 인용하면서, 소극적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으로써 이룩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소개하며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정의란 존엄한 인격체로서 인간 서로가 올바른 관계에 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폭력, 억압, 공포, 위협에 의해 강요된 질서,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富)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

22) "평화의 참무기(1976. 1. 1)" (『말씀집. 1975-76년』), pp. 239~240.

23)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참조.

람들을 지배하는 질서는 거짓된 질서이며,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평정'(平靜)이라는 말은 흔히 압제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질서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두 자를 보아도 벼(禾)가, (곧) 밥이 모든 입(口)에 골고루(平) 들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24]

2. 김수환 평화사상의 특징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이 실천한 평화감행의 여정은 특정 종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물리적 힘으로 얻고 지키려는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 없다고 한다. 김수환이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 보여준 평화사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의의 실현

1972년에 대통령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물리적 강압에 의한 안녕과 질서'가 아닌 참 평화에 대한 김수환의 소신은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다. 2014년 여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한 연설에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으며, 평화는 정의의 실현"[25]이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과 오버랩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평화는 오늘날 모든 이의 소망입니다. 하오나 세상은 아직도 힘의 평화, 즉, 무력과 경제력 등 힘의 균형과 질서 유지를 평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는 다르옵니다. 주는 외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불목의 죄악과 전쟁의 화를 우리 안에서 없애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서로 형제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평화를 원하면 먼저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26]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 국회에서 행한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한 연설에 대하여도 준열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번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정치에서는 그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더 큰 재난으로 우리를 파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특히 그 힘이 핵무기를 비롯한 고도의 화학무기를 뜻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없고 사회도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을 곧 평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독재정권 아래서는 국민은 무섭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회질서가 잘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극단의 비유일지 모르나 그런 것은 무덤의 평화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27]

평화는 인간존엄성과 인간권리의 존중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토대로 한다. 그렇다면 김수환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간다움이 제대로 실현된 모습이다.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 없이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힘에 의한 안정은 평화가 아닙니다. 한 국가사회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위정자와 국민 간에 있고, 국민 상호간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째 뽑아 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야심, 탐욕 등 남는 것은 모두 죄악뿐입니다. 혼은 타락하고 마음은 메마르고 황폐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발붙일 곳 없는 황무지 사막입니다.[28]

24) "평화에의 갈망(1988. 11. 25)" (『말씀집. 1988년』), pp. 523~524쪽.

25) 2014년 8월 14일에 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와대 연설 전문"은 방송, 신문 등 국내 각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26)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1972. 5. 1)" (『말씀집. 1971–74년』), p. 180.

27)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 3. 6)" (『말씀집. 1989년』), p. 68.

28)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1973. 3. 24)" (『말씀집. 1971~74년』), pp. 306~307.

2) 인간에 대한 사랑

마찬가지 맥락에서 김수환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인간 존중과 인간 사랑의 실천도 강조한다.

참 평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와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인간존엄성과 인간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사회정의를 토대로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모두 우리 이웃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민족 · 국가 등의 차별을 떠나서 형제로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인간의 참된 삶, 번영과 행복 ·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당신을 비우시고 바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과 같이 신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29]

그렇다고 김수환이 제시하는 평화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인 데 만족하고 머무르는 평화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해야 하는 현실적 평화, 일상생활 속의 평화이다.

남한 내의 휴대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사소통욕구가 그만큼 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남한과 북한사회의 의사소통은 초기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의 욕구를 건강하게 유도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해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깃들여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준비하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철학과 생활을 내면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 동포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시키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30]

29) "사랑과 평화(1986. 1. 1)" (『말씀집. 1986년』), p. 2.

30)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 4. 20)" (『말씀집. 1999년』), p. 61.

3) 세계를 향한 개방

김수환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교황 요한-바울로 2세의 말을 빌어서 힘주어 강조하기도 한다.

교황 요한-바울로 2세께서는 오늘 제16차 평화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시면서 오늘의 사회와 세계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 평화를 위해서는 참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 안의 여러 계층 사이에, 지도자와 국민, 노동자와 사용주 등 여러 계층 간에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함께 공동선을 찾는 자세로 대화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과 전쟁의 위험,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이런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평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 자체, 상대방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31]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던 여러 정치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미 보아 온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함을 잘 압니다. 광주사태 해결, 5공 비리 청산, 삼청교육대 문제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서로 적대관계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지역감정입니다. 특히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골이 깊습니다. 다음은 노사 간 계층 간 도농(都農) 간 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입니다. 또한 세대 간의 격차,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결핍도 심각합니다. 뿐더러 남존여비의 사상도 아직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 경시의 관념과 폐습은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인신매매 등의 심각한 죄악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자 노약자 나환자 결핵환자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땅의 평화는 첫째, 우리 모두의 인간다움을 위하여, 둘째, 국민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셋째,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국방도, 종교도 이를 위

31) "대화는 평화의 필수조건(1983. 1. 1)" (『말씀집. 1983년』), p. 16.

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아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32]

김수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을 힘주어 강조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신 것은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불의에 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일체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의와 폭력의 희생이 되면서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본을 받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가 그러했고, 사를르 드 푸코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도 그런 분이었고, 우리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분이었으며,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투투 대주교도 그런 비폭력 평화 투쟁가 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거짓된 술책이나 폭력을 수반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33]

김수환의 평화 사상과 그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가르침과 그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성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수환은 자신이 제시하는 평화를 '하느님의 평화' 혹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표현했으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김수환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는 평화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Ⅲ. 김수환의 평화사상이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

본고에서는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의 과제를 한국의 가톨릭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즉, 우리 시대 영성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옹기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 인물인 김수환의 삶과 행동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평화의 개념과 '평화감행'(平和敢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수환이 제시한 평화의 개념과 평화 실현을 위한 발자취를 통하여 평화실현의 비전을 그 윤곽이나마 제시하였다.

김수환이 참 평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사회정의', '생명의 소중함', '자기희생', '나눔과 배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 '생활 속의 평화' 등의 주요 원리는 단지 어느 종교 단체의 교리나, 일부 정치 집단의 소위 진영논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집단의 노선과 울타리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현대 평화 이론과 김수환의 평화사상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평화의 실현이다.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그 실천 과정을 천착함으로써 오늘날 세계가 처한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로서 평화 실현을 위한 보편적 관심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를 드리우고 있는 문명 간 충돌이나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학살, 인종 청소, 테러 등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들도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종교의 이름이다. 뒤집어 말하면, 21세기에도 종교는 여전히 인류의 정신적 기조를 이룰 뿐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고 여겨진다. 달리 말하면, 세계문화의 평화적 진전에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적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김수환의 평화이해와 특징에 대한 탐색은 테러와 분쟁 등에 불순한 의도로 왜곡되고 악용되는 종교가 아니라, 본연성(本然性)을 갖춘 종교 간의 만남과 그에 따르는 종교 간의 대화와 조화 그리고 협력이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그 특징에 대한 정리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무르익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의 진전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발자취에도 효용성 높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34]

32)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 3. 6)" (『말씀집. 1989년』), pp. 76~77.

33) 위의 글, pp. 77~78.

34) 박일영, "민족화해를 위한 남 · 북한 종교의 역할. 통일을 향한 가톨릭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대사상연구』 제7집 (경북 하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97), pp. 171~181 참조.

참고문헌

| 국문자료 |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
-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편. 『김수환 추기경 말씀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갈퉁, 요한(Galtung, Johan). 강종일 외 역.『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강영옥 외. 『사람답게 사는 삶.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청소년 인성교육』. 서울: 감사랑, 2014.
- 교황 요한 23세. 정규만 역.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현대 평화연구에서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 1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0.
-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 추기경 전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 디어, 존(Dear, John). 『헨리 나웬. 평화에 이르는 길』.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04.
- 박일영. “민족화해를 위한 남 · 북한 종교의 역할. 통일을 향한 가톨릭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대사상연구』, 제7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97.
- 박일영.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가톨릭문화”. 『21세기 한국사회의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서울: 조선호텔, 1999년 1월 21일.
- 박일영.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3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5.
- 박일영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제4권. 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6.
- 박종대. “평화”. 『우리말철학사전』 제2권, 서울: 지식산업사, 2002.
- 버거, 피터(Berger, Peter L.).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1.
- 이찬수/유정원. 『신학총서 32 종교신학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지라르, 르네(Girard René). 김진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1993.
- 큉, 한스(Küng, Hans).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종교 간의 대화 30주년 기념 대화모임 자료집,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 1995.
- 프리들리, 리캬르트(Friedli, Richard).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 프리들리, 리캬르트(Friedli, Richard). 김영경 역.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호텔, 2000년 6월 1일.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자료집』. 서울: 종로성당, 2001년 12월 4일.
- 헌팅턴, 새뮤얼(Huntington, Samuel).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문명이다』. 서울: 김영사, 1997.

| 영문자료 |

- Bouthoul, G., La Paix. Que sais-je? 1600, Paris, 1974.
- Erikson, E. H., Gandhi's Wahrheit. Über die Ursprünge der militanten Gewaltlosigkeit, Frankfurt am Main, 1971.
- Esser, J., Zur Theorie und Praxis der Friedenspädagogik. Kritische Konzepte für Schule und Erwachsenenbildung, Wuppertal, 1973.
- Friedli, Richard,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Schweiz, 1981.
- Friedli, Richard, "Zivilisierung von Gewalt? Fanatische Strukturen und buddhistische Affektkontrolle", in: Lähnemann, Johannes, Hg., Interreligiöse Erziehung 2000, Hamburg, 1998.
- Galtung, Johan, Strukturelle Gewalt. Beiträge zu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rororo aktuell 1877, Reinbek bei Hamburg, 1975.
- McGeveran, William A.,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New York: World Almanac Book, 2005.
- Rothenspieler, H., "Training gewaltfreier Aktion-Möglichkeiten emanzipatorischer Friedenspädagogik", in: Probleme des Friedens 10, 1975.
- Russell, Elbert W.,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G. Liedke, Stuttgart/ München, 1974.
- Smith, Wilfred Cantwell,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Swidler, Leonard 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 Zacharias, G., Der Kompromiss. Vermittlung zwischen gegensätzlichen Positionen als Ermöglichung des Friedens, München, 1974.

부록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1차 학술회의

2016.11.4. 금

–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2차 학술회의

2017.5.11. 목

–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3차 학술회의

2017.10.12. 목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1차 학술회의

2016.11.4. 금

1부.

함석헌의 평화사상

김대식 (대구가톨릭대) | 토론: 이호재 (한밝선당)

장일순의 평화사상

전호근 (경희대) | 토론: 김용우 (무위당사람)

2부.

전봉준의 평화사상

박맹수 (원광대) | 토론: 김정인 (춘천교대)

소태산의 평화사상

원영상 (원광대) | 토론: 김형수 (『소태산 평전』 저자)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2차 학술회의

2017.5.11. 목

1부. 전근대시기 평화사상

원효의 평화사상
이도흠 (한양대)

정약용의 평화사상
황병기 (서울대)

토론
이병욱 (고려대), 강희복 (연세대),
오항녕 (전주대), 안효성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2부. 근대시기 평화사상

한용운의 평화사상
박재현 (동명대)

안중근의 평화사상
김형목 (독립운동기념관)

조봉암의 평화사상
김태우 (한국외대)

토론
성해영 (서울대), 조형열 (고려대), 김보영 (서울대)

한국인의 평화사상
제3차 학술회의

2017.10.12. 목

1부.

최시형의 평화사상
김용휘 (한양대) | 토론: 성해영 (서울대)

박완서의 평화사상
방민호 (서울대) | 토론: 임정연 (안양대)

윤이상의 평화사상
이경분 (서울대) | 토론: 이희경 (연세대)

2부.

김대중의 평화사상
김학재 (서울대) | 토론: 김근식 (경남대)

박정희의 평화사상
조동준 (서울대) | 토론: 전재호 (서강대)

문익환의 평화사상
김형수 (『문익환 평전』 저자) | 토론: 최형묵 (한신대)

리영희의 평화사상
서보혁 (서울대) | 토론: 이대근 (경향신문)